산림환경신문

2023. 08. 07 | 914호

발행처 : 산림신문(주) / 발행인 : 김가영 편집인 : 김현중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번길 9 / 창간일 2002년 3월 1일
등록일 : 2001년 12월 7일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50675
인쇄인 : (주)아이앤피 권영근 /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7길 71
전 화 : 0502-260-6000 / 팩 스 : 0502-261-6000

사단법인 한국산림환경보호협회

주간 THE FOREST ENVIRONMENT NEWSPAPER WWW.EFOREST.KR 지구를 살리고 건강을 지키는 산림환경신문

수재의연금 모금 및 피해 임가와 이재민 복구 지원

- 산림청, 소속 · 공공기관, 협 · 단체 등 수해 피해지역 봉사활동 실시 -



산림청은 산하 공공기관(한국임업진흥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한국등산트레킹센터)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임가와 이재민을 위해 수재의연금을 모금하고, 대민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산림청과 소속 · 공공기관 직원들은 호우 피해 임가와 이재민의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수재의연금을 모금하기로 하였으며, 희망자에 한해 8월 급여에서 0.2%를 공제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은 7월 27일 충남 공주의 표고재배사 피해지를 시작으로 8월 18일까지 소속 · 공공기관 및 협회 · 단체 직원들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임가와 피해지에 대해 현지 실정에 맞는 피해복구 지원과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사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기 응급 복구를 위해 851대의 중장비(트럭 183대, 굴착기 433대, 트랙터 등 235대)와 부상자 등 지원을 위한 구급용 헬기 10대, 피해 조사를 위한 드론 54대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재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생활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해 복구를 위한 현장 지원인력 607명(산사태현장예방단 108명, 특수진화대 435명, 보호지원단 64명)도 투입하기로 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수해를 입은 임업인들과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청은 물심양면으로 이번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앞으로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사태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가영 기자 (desk@forestnews.kr)

국가전문자격 목구조(시공.관리) 기술자 양성교육

since 1997
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

국가전문자격 목구조기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하며, 목구조기술자는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목재구조물, 목조주택, 목조건축물의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
동법 시행령 제2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에 의거 2014년 12월 30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아 (국내 유일)2015년부터 목구조시공기술자와 목구조관리기술자를 과정평가형으로 양성.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본교 수료자에게 주어지는 특별 혜택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및 건설업등록 시 기술인력으로 인정됨으로 취업 및 창업에 유리합니다.

- 산림청지정 목구조기술자 전문인력양성기관
- 고용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교육부등록 평생교육시설
- 국토부지정 한옥시공전문인력양성우수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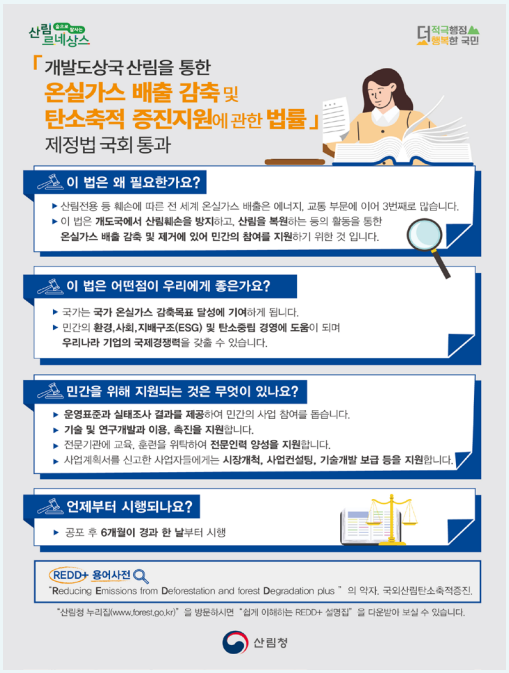
교육과정 :
1 단계 : 목구조시공기술자 예비과정 (360-450 시간)
2 단계 : 목구조시공기술자 연수과정 (350 시간)
3 단계 : 목구조관리기술자 연수과정 (350 시간)

campus
전북 임실군 성수면 춘향로 2530 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
전북 임실군 관촌면 사선2길 96 한옥기술인협회직업전문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로 487-15 대전목조건축학원

사단법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www.wood.or.kr 이메일 wood@wood.or.kr

☎ 0502-100-6000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은 7월 27일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개발도상국들의 제안으로 파리협약 제5조에 반영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이다.

또한, 이 사업은 선진국의 재원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 성공국가로서 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녹화 경험과 산림정책의 공유를 요청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15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과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65만톤의 감축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베트남, 가봉, 페루 등의 요청에 따라 사업대상 국가를 넓혀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및 탄소상쇄 달성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해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통해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민간의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가영 기자 (desk@forestnews.kr)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사업 활성화에 앞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대전 서구 KT 인재개발원에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15개 소속기관, 23개 사업 부서에서 운영되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사업의 프로그램 구성, 운영 절차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제공사업의 효율 및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진흥원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체험을 지원하는 숲체험·교육사업과 수탁·협력사업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산림복지를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항노화(치매 등) 예방·관리 사업, 숲태교(출산 장려) 지원사업, 소진(Burn-out)관리·예방사업, 학교·가정 등 제도 밖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23년도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사업의 수준을 진단하고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2명, 국민참여단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모았다.

박석희 산림복지서비스본부장은 “이번 사업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우수성과는 확대하고 미진한 부분은 개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관점에서 발전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숙희 기자 (desk@forestnews.kr)

임업인들, 호우 피해 임가 복구에 구슬땀



산림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임가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하여 임업인과 임업 관련 협회·단체가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산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여러 임업인이 산사태와 침수 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가운데, 전국의 임업인과 관련 협회·단체가 피해 임가 복구 지원을 위해 발빠르게 현장으로 나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14개 소속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임가를 방문하여 피해복구와 재해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독려하였으며, 집중호우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20일을 시작으로 많은 임업인이 이웃 임업인의 시설을 방문해 일손을 돕고 현장의 목소리를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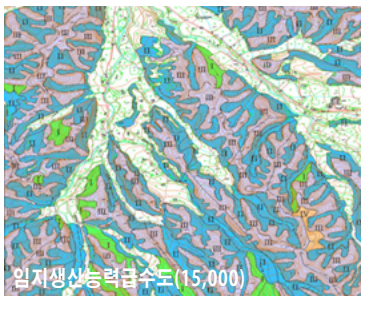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7월 집중호우로 인해 7월 19일 현재 기준 총 81.6ha에 달하는 산림작물 재배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해지역은 충남(44.7ha), 경북(16ha), 전북(14.1ha), 충북(3.8ha), 광주(2.7ha), 대전(0.3ha), 경남 순으로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품목별로는 대추가 27.4h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밤 22ha, 산나물 13.4ha, 약용·약초류 7.5ha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용진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전국의 많은 임가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같은 임업을 경영하는 임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라면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로 한순간 일터를 잃은 임업인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림청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desk@forestnews.kr)

임업정보 다드림(林), 대축척 임지생산능력급수도 제공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 7월 20일 임업정보 다드림(林) 시스템을 통하여 대축척(1:5,000) 임지생산능력급수도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임지생산능력급수도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토양의 잠재적인 생산능력을 Ⅰ급지에서 Ⅴ급지까지 구분하여 도면화한 자료이다.

1974년 전국을 대상으로 종이도면을 구축하였고 2012년에 디지털화하여 제작 되었으며 2021년도의 정밀한 산림토양 정보를 반영하여 대축척(1:5,000) 임지생산능력급수도를 현행화 하였다.

임지생산능력급수는 토양 깊이가 깊고 수분 함량이 많으며 토양의 성질이 양호한 최상위의 Ⅰ급지부터, 토양 깊이가 얕고 수분 함량이 적으며 토양의 성질이 척박한 최하위의 Ⅴ급지까지 단계별로 구분하여 산림공간정보로 제공한다. 임업정보 다드림(林) 누리집(gis.kofpi.or.kr) 내 필지별 산림정보 서비스 기능을 통해 국민 누구나 필지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정밀한 데이터 기반 산림경영 지원을 위해 고품질 산림공간정보가 이용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한 기자 (desk@forestnews.kr)

334종의 산림 신품종이 수록된 '2023 산림 신품종 해설집' 발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올해 새롭게 등록된 산림 신품종 39종을 포함하여 총 334품종이 수록된 '2023 산림 신품종 해설집'을 발간하였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신품종으로는 열매의 색이 검은색인 감나무 '블랙킹1호', 황금색 잎을 가진 곰솔 '우림황금11호', 남부지방의 정원수로 유명한 굴거리나무 '금이', 약복숭아라고 불리는 산복사나무 '도도향' 등 각양각색의 특징을 지닌 수종들이 포함되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새롭게 등록된 산림 신품종의 사진과 주요 특성을 정리하여 매년 '산림 신품종 해설집'을 발간·배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품종을 널리 홍보해 산업화 및 육종가의 보호권 실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발간 책자는 산림청 누리집과 센터 자료실(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알림마당-전자책-해설집으로 검색-pdf 파일 내려받기 가능)에도 게시되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고, 국가 및 지자체 연구기관과 산림분야 단체, 그리고 신품종 개발에 관심이 있는 개인 육종가에게 책자로 배포할 예정이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 신품종은 미래의 종자시장을 선도해나갈 중요한 산림식물자원이자 생명자원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신품종 개발 및 보급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정민희 기자 (desk@forestnews.kr)

미동산수목원, 특별기획전 '종이가 들려주는 이야기' 개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찌는듯한 무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에 잠시나마 휴식을 선사하고, 일상의 번잡함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한지공예의 멋과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충북산림환경연구소는 미동산수목원 산림과학박물관에서 7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특별기획전 '종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지공예가 한은숙 작가의 작품 50여 점을 선보이는 자리로 문양과 색상이 다채로운 반닫이, 서랍장, 경대 등의 작품을 통하여 전통과 일상의 아름다운 조화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한지'는 예로부터 종이의 본고장 중국에서도 '고려지'라고 부르며 높이 평가할 만큼 명성이 자자하였는데,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에 들이는 시간과 정성이 고스란히 품질로 이어진 덕분이다.

이번 전시작품을 통해서 한은숙 작가는 '한지'가 지닌 우수성뿐만 아니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지가 공예품이나 그림, 서책 등 한정된 분야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작품으로 증명하고 있다.

서정균 산림환경과장은 "우리 전통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마련한 이번 전시를 통하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지공예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한여름, 짙푸른 녹음이 우거진 미동산수목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회에 방문하여, 자연과 함께 부담없이 전통문화의 멋과 아름다움을 경험해 볼 것을 추천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김우열 기자 (desk@forestnews.kr)

지역 전문가와 함께하는 곶자왈보전연구협의회 개최



국립산림과학원은 제주도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곶자왈(용암숲)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7월 26일(수)「제1차 곶자왈보전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곶자왈보전연구협의회는 곶자왈 지역전문가(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제주생물자원), 산림조합장(서귀포 산림조합), 환경단체(곶자왈사람들), 주민대표(조천읍 선흘1리장, 한경면 저지리장)로 구성된 지역사회 기반의 연구협의체이다.

이번 연구협의회에서는 현재까지 수행한 곶자왈 연구를 공유하고 향후 수행될 연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될 곶자왈보전연구협의회의 역할과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2012년부터 심층적인 곶자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단계(2012-2018)에서는 곶자왈의 다양한 희귀 동식물을 조사·분석하였고 2단계(2019-2023)는 곶자왈뿐만 아니라 제주도 산림생태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산림생태계(오름, 용암함몰구 등)까지 연구 영역을 확장하였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3단계(2024-2028)에서는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곶자왈 현장에 맞는 산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설아라 연구사는 "제주의 허파이자 산림생명자원의 보고인 곶자왈의 보전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라며, "연구협의회는 지속가능한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해 유기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라고 전했다.

정민희 기자 (desk@forestnews.kr)

목재펠릿 KS 표준 마련을 위해 KS 전문위원회 개최



국립산림과학원은 7월 27일 고형 바이오연료 KS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목재펠릿의 등급별 연료품질과 규격을 정의한 한국산업표준 제정(안)을 검토했다.

이번에 검토된 목재펠릿 KS 제정(안)은 비산업적 및 산업적 용도를 위한 등급별 목재펠릿의 품질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의한 것으로 과거 목재펠릿 표준과 확연히 다른 완성도를 보인다.

기존 목재펠릿 표준(KS M 3938)은 2017년도에 제정되어 운영되왔으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다루는 사용원료 및 적용범위와 차이가 커 국제교역에 활용되기에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기존 표준은 폐지하고 국내 산업현실에 맞게 ISO 17225-2(Solid biofuels - Fuel specifications and classes - Part 2: Graded wood pellets)의 기술적 내용을 변경하여 표준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KS 업무 담당자는 "이번 KS 제정(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요구사항과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부속서 11(목재펠릿)의 품질기준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것" 이라고 말하며, "국제동향과 국내 산업기반을 면밀히 살펴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규제개혁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고 전했다.

박은택 기자
(desk@forestnews.kr)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 순천시장 노관규 -



순천시는 산과 바다, 숲과 갯벌이 어우러진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여유와 힐링을 선사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생태수도"이다.

모두가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 팽창을 추구할 때 순천은 순천다움을 지키며, '생태'를 기반으로 과감히 남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이제는 생태수도라는 '선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완성'의 단계로 재도약 하려는 순천시 노관규 시장을 만나보았다.

Q1.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현재까지의 성과는 어떤가요?

개장 84일 만에 관람객 500만 명을 돌파했고, 현재기준(7. 20.) 54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목표 관람객 800만 명의 67.5%가 달성된 것입니다.

박람회 수익금 역시 입장권 175억 원, 기부·후원금 등 30억 원, 식음 판매로 인한 수익금 10억과 가든스테이 및 정원드림호 등 운영 수입 30억 원까지 총 245억을 넘어서며, 수익 목표액 253억 원의 97%를 달성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500만이 넘는 외부 소비군이 순천을 넘나들며 기름을 넣고, 밥을 먹고, 선물을 사는 등 경제활동을 감안하면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내놓은 예상치를 보면 이번 박람회의 생산유발 효과가 1조 6천억 원에 달하며 부가가치 7,156억 원, 고용창출효과가 2만 5천여 명입니다.

여기에 정원박람회로 물꼬가 트인 기업이나 기관이 순천에 투자하는 파급 효과까지 추정한다면 더 큰 수치가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최근에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도시의 판을 바꾸고 아파트와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제28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숫자도 숫자지만 중요한 건 관람객의 진심어린 평가입니다. 타지에서 오신 관람객들이 "순천 정말 부럽다. 우리 도시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순천시민들도 "두고두고 물려줄 유산이다, 유럽이 안부럽다" 하시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계십니다. 뿌듯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Q2. 탄소중립으로 가는정원산업의 미래가 보입니까?

정원박람회는 단순히 '꽃 박람회' 아니라 정원문화(정원산업)을 기반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표준을 세우는게 목표입니다.

순천은 10년도 더 전부터 남들이 가지 않았던 '생태' 라는 길을 택했고, 그 결과 굴뚝 산업기반 하나 없이도 꾸준한 인구 증가와 지속적인 성장 도시로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40곳이 넘는 지방정원이 유행처럼 조성되고 있습니다. 1호 국가정원을 가진 순천이 이미 한차례 도시발전의 이정표를 세웠듯, 이번에는 기후위기 시대, 지방도시가 탄소중립을 어떻게 선도할 수 있는지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Q3. 이제 시작인 정원산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박람회 이후에는 정원문화산업 핵심거점 육성을 통한 정원문화 육성 및 정원산업 기반 구축 및 국가정원과 습지, 그리고 도심을 하나의 녹지축으로 잇는 정원가도 프


새롭게 주목받는 탄소흡수원, 순천만습지 갯벌




정원박람회 전경


정원박람회로 살아나는 지역경제(2023 개장일)

로젝트와 여자만해양정원 조성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첫 번째 정원문화산업 핵심 거점 육성'은 정원문화거점 조성, 정원소재 생신지원시설 등을 위한 사업으로 순천시에서는 2024년 국고 건의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천만과 국가정원, 도심을 잇는 긴 녹지축을 만들어 정원도시의 모양을 갖추어 가려는 계획이며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연구와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해양정원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권역별 조성 계획에 따라 충남 가로림만 해양정원(1,577억원), 포항 호미반도 해양정원(1,666억원), 남해안권역은 순천(순천만) - 보성갯벌(여자만)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전남도에서 올해 9월에 예타대상사업 신청서를 해수부에 제출, 선정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며, 2024년 사업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풀릴 경우 순천은 내륙의 국가정원과 해양의 국가정원을 동시에 가진 세계 유일의 도시가 됩니다.

육상의 그린카본에 비해 탄소 흡수 속도가 50배 빠른 블루카본(갈대군락, 갯벌)은 기후위기 시대에 주목 받고 있는 자원입니다.

국가정원(에코벨트 · 그린카본)에서 순천만을 중심으로 한 여자만 해양정원(세계유산 · 블루카본)사업은 대한민국 해양정원사업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Q4. 순천시 만의 또 다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 있나요?

지금 웰니스와 메타버스 시대, 사람들은 일만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순천은 사람이 대접받고, 사람이 우선시 되는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아스팔트 도로를 광활한 정원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대자보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대자보란 대중교통 · 자전거 · 보행자 중심의 줄인 말로 사람이 중심인 도시, 걷고 싶은 도시, 자전거가 편리한 도시를 만들고, 도심 전체를 생태축으로 연결하여 기후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탄소중



김현중 발행인과 노관규 시장

립도시를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순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하고 대중교통 편리화(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환승센터 조성), 자전거 도록 확충 및 이용 활성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 정비 및 환경 개선 등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이 가장 편한 도시로 바꿔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원도심에도 적용돼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상권 정비, 시민로 물길 및 카페거리 조성 등 순천의 생태여건을 살린 도시의 모양새로 사람이 행복한 콘텐츠 개발에 힘쓸 것입니다.

또한 향, 유채유 산업 등 박람회 관련 산업이 스마트 농업과 결부돼 장기적인 일자리와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방산업까지 선도할 것입니다.

Q5.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육성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육성에는 사계절잔디, 향산업, 육종이 있습니다. 사계절 잔디 시범단지 및 시범포 조성하는 산업과 융복합 그린 신산업인 향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향식물 시범재배 등을 하고 있으며 정원식물 신품종 육종과 정원소재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육종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국가정원 · 정원지원센터 등 정원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생산 · 연구 -> 유통 · 교육-> 문화 · 산업으로 정원 생태계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비가 오는 순천만 정원에 오니 푸르름과 신선함이 더한 것 같다. 바쁜일정으로 30분만 대담하기로 하였으나 차 한잔 마실 여유도 없이 바로 시작한 얘기는 1시간 반을 지나고나서야 후일을 기약하며 마무리 지었다.

박람회 준비과정의 어려움, 가족과 아픈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솔직함에서 더욱 크게 느껴지고, 비전을 위해 쌓았을 해박한 지식에 감탄하며 대담 내내 노관규 시장의 숨은 노력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는 정원박람회 성공으로 중앙정치에 진출하려 하던데' 라는 질문에 당황하더니 잠시 후 '지난번 실패를 거울삼아 순천에 전념하겠다'고 하며 정원산업을 위해 모든 것을 담아 성공시켜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을 만들거라고 답했다.

청바지에 흰셔츠를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나는 민들레처럼 희망을 퍼트리고 싶다" 의 저자 다웠다.

김동한 기자 (desk@forestnews.kr)


경관농업 - 플아트


사계절 잔디 시범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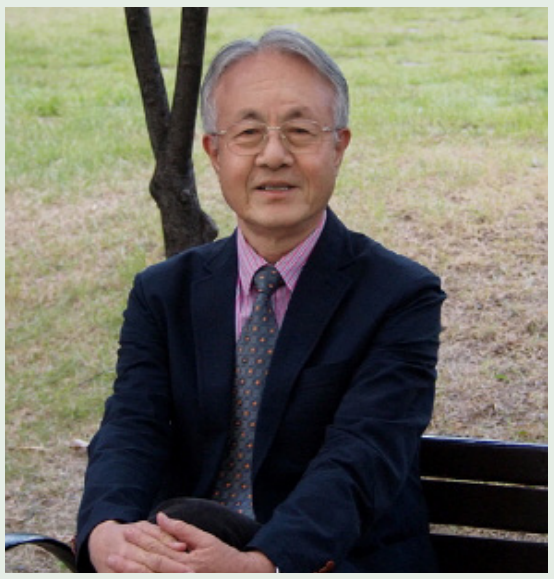



스마트농업

연재

박상진 교수의 나무세상 ②

건축재 나무



박상진 교수

서울대 임학과
일본 교토대학 농학박사
(전)국립산림과학원, 전남대 및 경북대 교수
(현)경북대 명예교수
한국목재공학회장,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e-mail : sjpark@knu.ac.kr
Homepage : http://treestory.forest.or.kr/

· 주거의 발달과 나무

사람이 처음 집단생활을 시작할 때는 자연 동굴을 주거공간으로 이용했으나 차츰 그 형태가 인위적인 움막으로 발전했다. 선사시대에 만들어진 구조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움막의 재료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으나, 겨울의 추위가 심한 한반도의 특성상 반지하의 구조가 필요했을 것이다.

바로 수혈식(竪穴式)주거지다. 가장 원시적인 형태는 둥글게 움을 파고 둘레에 서까래를 세워 가운데로 모이도록 만든 원추형 움집이다. 서울 암사동의 4호 집터처럼 바닥의 네 귀퉁이에 한 개씩의 큰 기둥구멍이 있다. 움집들로 벽을 보강하고 서까래를 견고하게 떠받치기 위해 벽체기둥을 세우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쓰인 나무들은 구석기 문화유적지로 유명한 석장리의 경우 참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등이었다. 수양개 유적의 경우에는 참나무, 오리나무, 소나무가 출토되었다.

울산 옥현의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는 수집 표본의 54%가 참나무였으며 25%가 굴피나무, 느릅나무가 5%, 소나무가 4%의 순이었다. 이런 나무들이 모두 건축재로 쓰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나무의 성질로 보아서 참나무는 기둥처럼 힘을 많이 받는 구조재로 사용했을 것이다. 그 외의 나무들은 서까래 등의 보조재로 쓰였으리라 짐작된다.

삼국시대가 시작되면서 주거의 위치는 차츰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건축재는 통나무를 그대로 사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가공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절대권력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왕궁의 건축에는 나무껍질을 벗기고 멋스럽게 다듬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때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철기문화와 함께 목재의 가공기술은 급격히 발전했다. 도끼와 톱을 이용한 판자 만들기도 훨씬 손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의 나무건축물 중 현존하는 것은 없다. 문헌으로 찾아들어가 보면 《삼국사기》에 기록이 있다.

고구려 시조 주몽은 부여를 떠나면서 일곱 모가 난 돌 위의 소나무 기둥 아래(七稜石上松下)에 부러진 칼 한 쪽을 묻어둔다. 훗날 태어난 아들 유리는 자기 집 소나무 기둥 밑에서 부러진 칼 한 쪽을 찾아내어, 아버지가 있는 졸본으로 달려가 주몽을 이어 임금이 된다. 소나무가 건축물의 기둥으로 쓰였다는 최초의 기록이며 그만큼 소나무가 널리 자랐다는 증거이다.

삼국이 정립되던 2천여 년 전, 만주벌판의 고구려 땅에는 이전부터 소나무가 비교적 널리 퍼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만주 벌판에 소나무가 먼저 자리 잡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소나무는 햇볕을 좋아하는 나무다. 자라는 데 햇빛이 들어올 넉넉한 공간이 필요하므로 우거진 숲에서는 크게 번성하지 못한다. 오랜 세월동안 다른 나무들의 등살에 억눌려 살아오던 소나무는 기원전 10세기 전후 북방민족이 남하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숲에 불을 질러 농경지를 넓히고 집짓기와 난방에 필요한 나무를 베어내니, 소나무가 좋아하는 삶의 터전이 확보된 것이다. 그러나 백제와 신라의 땅, 한반도 깊숙한 곳엔 산악지대가 많고 사람의 수가 적어서 숲이 울창한 편이다. 즉 소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넓고 양지바른 곳을 찾기 힘들다. 따라서 넓은잎나무가 주로 산을 점령했으며 이런 증거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삼국사기》 옥사(屋舍)에 '주택 한 변의 길이는 진골 24척, 6두품 21척, 5두품 18척, 4두품 이하는 15척을 넘지 못한다' 며 집 크기를 못 박았다. 덧붙여서 집짓는 나무로 5두품 4두품 이하는 '느릅나무(山楡木)을 써서는 안 된다' 고 아예 나무 종류까지 규제하고 있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귀족들이 집을 지을 때 느릅나무를 널리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에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운명적 만남이 나온다. 남천에 걸려 있는 느릅나무다리(楡橋)에 원효대사가 일부러 떨어짐으로써 인연이 시작되었다. 시대를 앞서간 신여성 평강공주가 청혼하러 온달 집을 찾아갔을 때, 그는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려 앞산에 올라가 있었다. 이 같은 기록으로 짐작해보건대 한반도에는 느릅나무가 흔했고 고급 기둥나무 등 건축재로 널리 사용되었다. 영명이 elm인 느릅나무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건축재이다. 그 외 참나무와 천마총 관재인 느티나무 등도 널리 쓰인 것으로 보인다.

유적지에서 출토된 신라시대의 나무를 보면 경주박물관 본관 신축부지에서는 소나무, 참나무, 오리나무 등 25종의 나무가 나왔다. 대구 칠곡 아파트 단지에서 발굴된 수중보(洑)는 5~6세기 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해본 결과 32종류의 나무가 발견되었다. 이 중 참나무가 30%, 오리나무가 18%, 버드나무가 12%의 순이었으며 느릅나무와 소나무도 3%씩 차지했다. 신라시대 대구 근교의 산에는 대부분 넓은잎나무가 번성해서 바늘잎나무인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았음을 알 수 있다.

백제의 건축재를 짐작할 만한 자료는 매우 부족하지만 익산 미륵사지와 궁남지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미륵사지에서는 바늘잎나무로써 소나무와 금송이 보였고 넓은잎나무로써는 밤나무, 가래나무, 버드나무, 뽕나무, 오리나무 등이 발견되었다.

궁남지에서는 느티나무, 참나무, 밤나무, 소나무 등이 출토되었다. 한편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의자왕 19년(659) '대궐 뜰에 있는 느티나무(槐木)가 사람이 곡하는 소리처럼 울었다' 고 되어 있는데 궁궐에 느티나무가 많았음을 설명해주는 부분이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나무는 미륵사지에서 나온 금송이다. 작은 토막형태로 남아 있어서 추정이 어려우나 출토된 위치로 보아서 관재가 아님은 분명하다. 금송의 원산지인 일본의 경우, 조각재나 기구재로 쓰이는 예는 드물고 주로 건축재나 관재로 이용했다. 따라서 미륵사지 출토 금송은 건축재, 그 중에도 기둥나무일 가능성이 높다.

부여 능산리에서 나온 비자나무 역시 관재뿐만 아니라 건축재로 쓰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입재 금송과 남해안에서 자라는 비자나무는 아무래도 왕족이나 고급귀족들의 나무였을 테고 느티나무와 밤나무, 참나무 등은 일반 백성들이 사용했으리라 짐작된다.

고려시대로 접어들면서 삼국시대 때 쓰이던 나무와는 종류가 달라진다. 평안도에서 전라도를 잇는 한반도 서부 지역은 정치무대의 중심이 되었고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급격히 산림이 파괴되었다. 가까운 산에 소나무가 많아지니 당연히 그 사용 빈도가 점점 높아졌다. 그러나 소나무 외에는 모두 잡목으로 취급하던 조선시대 이전이라서 소나무에만 의존하지는 않았다. 고려 초 화물선 완도배의 밑바닥에 비자나무와 참나무까지 쓰고 있는 예가 이를 증명한다.

몽고란을 거쳐 고려 후기로 오면서 주위에는 점점 소나무가 많아 졌다. 삼국시대 때 건축재로 쓰던 느릅나무, 느티나무, 참나무 등이 차츰 소나무로 바뀌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부근에는 소나무 외에 건축재로 쓸 만한 나무가 없었다. 그러나 깊은 산 속에 있는 사찰 건물만은 소나무보다 훨씬 오래 쓸 수 있고 주변에 풍부하게 자라는 느티나무나 참나무를 주로 이용했다.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강력하게 소나무 보호가 시작되었다. 새 왕조의 개창과 더불어 수도 건설과 새로운 권력자들의 건축물, 지방관서 건물 신축 등 건축재의 수요가 급증한다. 아울러서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남해안을 휩쓸고 다니는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 많은 배가 만들어졌는데, 이에 쓰인 나무도 만만찮았다. 몽고란 이후 지속된 산림 파괴로 인해 벌채하여 쓸 수 있는 나무는 소나무 외엔 거의 없었다. 자연히 소나무마저 차츰 줄어들게 되었다.

실록을 보면, 세조 7년(1461) 병조에서 소나무의 벌목을 금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있다.

'송목금벌(松木禁伐) 법은 엄하지만 관리 소홀로 배를 만드는 재목조차도 다 없어졌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나라에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가나 양반 집에서는 배를 만들 수 없는 소나무만을 쓰게 하고, 백성들은 잡목을 쓰게 하소서'

조선 초기의 소나무 보호정책과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록이다. 이후 《경국대전》에도 소나무 보호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으나 소나무는 점점 고갈되어 갔다.

조선 초기 건물로 알려져 있는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수다라장 장경전은 기둥 48개 중 느티나무가 22개, 참나무가 2개이고 나머지는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이다. 법보전은 47개가 느티나무, 1개가 잣나무이다. 강진 무위사 대웅전 기둥도 소나무와 단풍나무가 섞여있다.

조선 중후기로 내려와서도 사찰 기둥에는 소나무, 느티나무, 참나무, 전나무 등이 두루 쓰였다. 반면에 궁궐이나 관아의 건축물에 대부분 소나무가 쓰이면서 소나무는 최고의 나무로, 나머지 나무는 잡목으로 인식되었다.

왕실 건축과 배 만드는 데 들어가는 소나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전국 2백여 곳에 봉산(封山)이라는 소나무 특별보호구역을 만들고 벌목을 엄격히 규제했다. 그래도 수효에 비해 소나무 공급이 늘 부족했고, 조선조 말에 이르면 깊은 산골 외에 쓸 만한 소나무가 남지 않게 되었다. 그나마 한강 수계(水系)로 운반이 불가능했던 울진 · 봉화 지역의 소나무들은 오늘날까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의 산을 둘러보면 온통 소나무이고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도 역시 소나무다. 주거문화라는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전체를 대표하는 문화에 나무를 넣어본다면 우리 나무문화는 주저 없이 소나무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와 소나무의 길고도 질긴 인연을 고려해볼 때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삼국시대에서 고려로 이어진 우리 역사의 중반기에는 참나무와 느릅나무, 느티나무가 소나무 못지않게 선조들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었음을 알게 된다.

산림신문
FOREST NEWS
2023. 08. 07 | 914호
발행처 : 산림신문(주) / 발행인·편집인 : 김가영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번길 9 / 창간일 2017년 5월 29일
등록일 : 2017년 5월 29일 / 등록번호 : 서울 다 50590
인쇄인 : (주)아이앤피 권영근 /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7길 71
전 화 : 0502-006-6000 / 팩 스 : 0505-261-6000

KWE 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

주간 THE FOREST NEWSPAPER WWW.FORESTNEWS.KR 숲을 사랑하는 한국의 산림 정론

제주 자생 맹그로브 국제 공동연구 시작


제주 자생 맹그로브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지난 7월 21일(금), 베트남 산림위원회(Management Board of Forestry Projects)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맹그로브 숲 등 도서 해안지역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국제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는 두 기관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한국 및 베트남 도서 해안지역의 맹그로브류 탄소흡수능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맹그로브 숲은 '블루카본(Blue Carbon)'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로, 생태계 단위 면적당 탄소 저장량이 온대 산림의 3-5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미래 중요 탄소흡수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블루카본이란 바닷가에 서식하는 생물, 맹그로브 숲, 염습지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진은 제주 해안가의 자생 맹그로브류(황근, 갯대추)의 탄소흡수능력이 자생 활엽수종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밝혔고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번 협약에서는 현지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맹그로브 증식 및 양묘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맹그로브 숲의 생태계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증식 기술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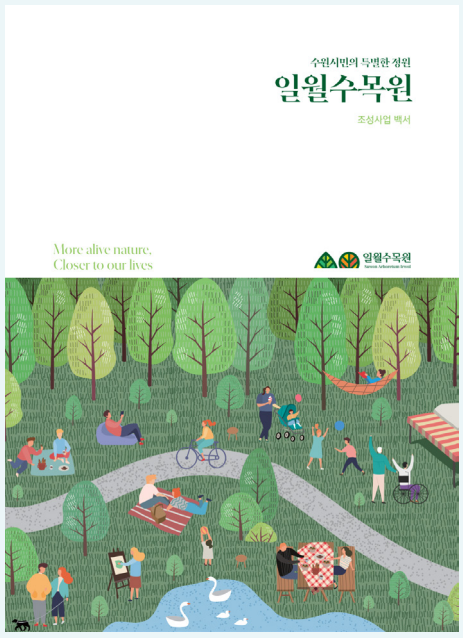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보라 연구사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공동 연구를 통해 맹그로브 숲의 탄소흡수 능력을 파악하는 동시에, 현지의 생태계와 잘 어울리는 증식 및 양묘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국제공동연구협약을 시작으로 맹그로브 관련 연구와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갈 예정" 이라고 전했다.

정민희 기자
(desk@forestnews.kr)



일월수목원 조성사업 백서 '수원시민의 특별한 정원 일월수목원' 발간



수원시가 2014년 '수원수목원 추진계획' 수립 단계부터 올해 5월 일월수목원 개원에 이르기까지 일월수목원 조성사업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수원시민의 특별한 정원 일월수목원'을 발간했다.

백서는 일월수목원 조성 추진 배경·경위·내용 등을 담은 '일월수목원'을 비롯해 일월수목원 발자취, 일월수목원은 역사를 품에 안고, 일월수목원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과 아름다움, 함께 내딛는 큰 걸음, 일월수목원의 성과 및 나아갈 길 등 6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2014년, 수원시는 시민들에게 자연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도심형 수목원 조성'을 계획했고, '수원수목원' 조성을 위한 보고회를 열었다. 일월수목원이 첫발을 떼는 순간이었다.

2015년 수원수목원 대상지 사전검토 용역을 추진했고, 일월공원(장안구)과 영흥공원(영통구)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원(일월) 수목원 조성공사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B/C(비용편익 분석)는 1.489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2018년 7월 산림청으로부터 '수원수목원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았고, 그해 1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준비를 거쳐 2020년 11월 마침내 공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준공한 후 올해 5월 19일 개원했다.

장안구 천천동 일월공원 내에 10만 1500㎡ 규모로 조성된 일월수목원은 체계적인 식물 수집·연구, 생태 보전, 생태 교육 등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수원시의 '생태랜드마크 수목원'이다.

지중해 식물을 볼 수 있는 전시온실과 숲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숲정원', 수생식물을 도입한 '습지원',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장식정원', 척박한 기후 환경에도 자라는 강인한 식물들이 있는 '건조정원', 물의 순환·활용 과정을 보여주는 '빗물정원' 등 8개의 주제정원으로 조성됐다.

일월수목원은 시민과 함께 조성한 '시민 참여형 수목원'이기도 하다. 2019년 3월 '수원시민, 수목원을 만들다'를 주제로 참시민토론회를 열어 시민들 의견을 들었고, 같은 해 수원수목원이 들어설 일월공원 안에 '소통박스'를 운영해 시민 의견 1040건을 수렴했다. 시민 의견은 설계에 반영했다.

백서는 '일월수목원이 나아갈 길'로 생애주기형 수목원 서비스 제공, 국내·외 협력을 통한 수목원 전문성 확보, 수원시 반려 식물 문화 확산 전초기지 역할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발간사에서 "인구 120만 명 도시에 걸맞은 자연시설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시장 시절 직접 계획한 수목원이기에 더 애착이 간다"며 "일월수목원과 영흥수목원이 개원하면서 수원은 이제 20분이면 수목원을 찾을 수 있는 도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월수목원이 수원 생태계를 지키는 '환경 랜드마크', 다른 식물원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광 랜드마크'로서 풍성하게 가꿔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재룡 기자 (desk@forestnews.kr)

인공증식한 장수하늘소, 자연번식 확인



국립수목원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의 서식지(광릉숲) 내 복원연구를 진행하던 인공증식 개체와 야생서식 개체의 번식장면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연구진은 장수하늘소 행동권을 연구하기 위해 인공증식한 장수하늘소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방사하였다. 방사한 장수하늘소 암컷의 위치를 추적하던 중, 자연 서식 중인 야생 수컷이 방사한 암컷을 찾아와 짝짓기를 시도했고, 암컷이 기주식물인 서어나무에 산란하는 모습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국립수목원과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의 복원을 위한 협업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이들의 생태적 특성 파악하고자 2021년부터 현재까지 3년째 인공증식한 장수하늘소에게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광릉숲 내 행동권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에 사용한 인공증식 개체들은 광릉숲에서 확보된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개체군의 자손들이며 올해는 총 20개체를 방사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연구진은 야외 행동권 연구 외에도 플라이트밀*을 활용한 비행 능력 실험, 월동 및 휴면각성 실험 등 장수하늘소의 자세한 생태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이고 있다.

신현탁 산림생물다양성과장은 "기후변화 시대에 장수하늘소와 같은 북방계 곤충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연구로 인공증식을 통해 서식지 내로 재도입 된 개체들의 자연적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광릉숲의 상징인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의 보전을 위한 연구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김경현 기자
(desk@forestnews.kr)

폭염 대비 국립공원 산행 시 주의사항 안내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방문 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행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 6월과 7월 미국 국립공원에서 폭염으로 인한 탐방객 사망사고 발생한 사례가 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질병이다.

산행 중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통기성이 안 좋은 몸에 꽉 끼는 옷보다는 밝은색 계통의 헐렁한 옷을 착용하길 권하며, 염분이 포함된 간식을 준비하여 섭취해야 한다.

또한 체력에 맞지 않은 무리한 산행을 하지 말고, 가급적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해야한다. 온열질환 증상이 발생하면 즉각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국립공원 직원(레인저) 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단은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지리산, 가야산국립공원 등 17개 국립공원 56개 계곡에 한하여 최대 8월 31일까지 출입을 허용한다.

출입구간에서는 손발 담그기와 세안 정도만 허용되며 세탁, 목욕, 물고기 포획 등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단속 되며 적발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폭염 대비 국립공원 산행 시 주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국립공원별 한시적 계곡 출입 허용 장소 및 기간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폭염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며, 국립공원 방문 시 공단이 안내드린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안전하게 탐방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정민희 기자 (desk@forestnews.kr)

강릉솔향수목원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낭만 가득 야외 결혼식

강릉시는 울창한 소나무 숲에서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낭만적인 야외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강릉솔향수목원을 숲속 결혼식장으로 개방한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숲속 결혼식 지원사업'은 허례허식 없는 결혼문화를 정착하고 작지만 뜻깊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나눔의 공간을 제공한다.

숲속 결혼식은 예비 부부 중 1명 이상 또는 부모님 중 1명 이상이 강릉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총 10쌍의 부부를 선정한다.

결혼식 비용의 일부 지원과 결혼식 장소를 제공하며, 지원금은 야외 결혼식에 따른 공간조성비 등 세팅 및 임차 비용으로 지원된다. 접수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솔향수목원 홈페이지와 강릉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강릉솔향수목원에서는 숲해설과 함께하는 다도체험, 가드닝 원데이클래스, 유아숲 교육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아름다운 빛의 향연이 펼쳐지는 야간개장을 연중 운영 중이다.

신승춘 녹지과장은 "강릉시의 많은 예비부부들이 숲속 작은 결혼식을 통해 한번 뿐인 소중한 순간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하시길 바라며, 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민 기자
(desk@forestnews.kr)

강진군산림조합-진도군산림조합,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강진군이 지난 7월 14일 강진군산림조합과 진도군산림조합 임직원들이 강진군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상호 지역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강진군청에서 진행된 기부식에는 강진원 강진군수, 윤길식 강진군산림조합 조합장, 허용범 진도군산림조합 조합장 등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각 지역의 상생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상호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강진군산림조합, 진도군산림조합 임직원 20여 명의 뜻을 모아 마련됐다.

윤길식 강진군산림조합장은 "상호기부에 동참해주신 허용범 진도군산림조합 조합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상호기부식이 지역 간 협력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문화 확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해주신 산림조합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끌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진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기부자)이 강진군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강진군의 답례품을 받고 이 기부금은 강진군을 위해서 쓰인다.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답례품은 한우, 쌀, 파프리카, 전복 등 강진 대표 농수축산물과 푸소 체험권, 강진사랑상품권 등 다채로운 품목들이 마련돼 있다.

강진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희망하면 포털 사이트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 후 고향사랑이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에서 대면으로 기부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강진군청 총무과(061-430-3462, 4)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중 기자
(desk@forestnews.kr)

최창호 중앙회장,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면담해 임업 발전방안 건의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면담해 임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창호 중앙회장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산림조합의 역할을 설명하고 임업 발전 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임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률을 개정해 임업인 대상 자금 지원과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주와 임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임업자금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임업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국회에 관련법률 개정에 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경현 기자 (desk@forestnews.kr)

산림조합중앙회, 수해민에게 숙박 시설 지원



산림조합중앙회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숙박시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업인종합연수원(경북 청송), 강릉교육원(강원 강릉), 진안교육원(전북 진안), 양산교육원(경남 양산) 등 4개 기관은 교육생을 위한 숙박시설 227개실을 개방해 수해민 약 72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이후 산림조합중앙회는 교육생과 수해민의 현장 수요를 신속히 파악하고 숙박시설 지원 배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밖에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회원조합은 강원·충청·전라·경북 지역 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해민을 대상으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4일 기준 인력 1181명, 장비 226대, 구호물품 6,284점을 수해 현장에 긴급 지원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장마철 폭우가 멈춘 이후에도 2차 산림재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복구에 힘쓰면서 수해민이 일상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desk@forestnews.kr)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생산과정확인 신청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은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생산과정확인 시기가 도래하는 산양삼 재배자를 대상으로 생산과정확인 신청 장려에 나선다.

특별관리임산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 현재 산양삼이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되어 있다.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을 말하며, 생산 신고 후 생산과정기록을 확인 받고 품질검사에 합격하여야 판매를 할 수 있다.

재배 예정지의 토양과 종자·종묘는 산양삼 생산 전 생산적합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성적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자체에 생산신고를 하고 종자·종묘를 심어야 한다. 또한, 산양삼은 유통·판매 이전에 품질검사(유효기간 2년)를 받아 합격해야 한다. 품질검사에 합격하면 합격증이 발급되며, 합격증을 반드시 부착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산양삼 생산자는 「임업진흥법」 제18조의3(생산과정의 확인 등)에 따라 생산과정확인을 신청(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5개월 이내)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생산과정을 기록·관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진행방식은 한국임업진흥원 조사원이 산양삼 재배 현장을 확인하고, 산양삼 생산자가 작성하고 있는 생산과정기록부를 점검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이번 생산과정확인 대상자는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에 생산 신고한 산양삼 재배자가 해당된다. 생산과정확인 신청은 산양삼정보다드림(sam.kofpi.or.kr) 공지사항에서 '특별관리임산물 각종 신청서 등'의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goodservice@kofpi.or.kr) 또는 팩스(070-4849-1091)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1600-3248로 연락하면 생산과정확인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 적극적인 생산과정확인으로 청정한 산양삼 품질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양삼 이력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겠다." 라고 밝혔다.

정민희 기자
(desk@forestnews.kr)

'2023 민간분야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한국임업진흥원은 8월 11일(금)까지 '2023년 민간분야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ESG와 연계한 탄소중립 이행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기여를 위한 활동 중 REDD+ 사업의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분야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국별 대상지에 대한 산림현황, 관련 법규 및 정책, 후보지 현황, 사업 적합여부 등 사전조사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별도의 참가자격 없이 참여의사가 있는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참여 기업 모집 후 평가를 거쳐 최대 3개사를 선정할 예정이고, 사업규모는 기업별 4,700만원 수준으로 조사사업비의 70%인 3,300만원까지 국비로 지원한다.

이강오 원장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REDD+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ESG 활동 면에서 REDD+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며 "이번이 올해 마지막 지원사업인 만큼 ESG 경영과 자발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REDD+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민간분야 REDD+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과 해외산림투자정보서비스(ofiis.kofpi.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가영 기자 (desk@forestnews.kr)

영주시, 약용작물 '잔대' 상품화 본격 나서



영주시가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 중인 '잔대' 상품화에 본격 나섰다고 전했다.

잔대는 면역력 향상, 항노화, 기억력 개선, 기관지염 치료 등 효능과 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고 1년에 2회 이상 수확이 가능한 신소득 약용작물로 농업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7월 1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수와 전문가, 잔대발전연구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잔대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와 잔대 우량종근 다수확 실증시험 기술교육을 가졌다.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포장에서는 작년부터 내년 9월까지 삼색부직포, 2중 차광막, 볏짚 및 무피복 등 시험포를 만들어 잔대 종자를 회원들이 직접 파종하는 실증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잔대를 이용한 가공품(건강음료, 장아찌, 말차, 젤리, 양갱)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잔대의 강력한 항산화, 항혈전, 항당뇨 활성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잔대잎의 폴리페놀 함량이 뿌리보다 10배 이상 높아 잔대잎을 이용한 말차의 우수한 상품성을 확인했다.

정충렬 박사는 "영주는 일교차와 일조량,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춘 소백산 자락에 위치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잔대 재배가 가능하다" 며 "지역의 환경적 강점을 살리고 차별화된 홍보·유통 전략을 세운다면 '돈 되는 잔대'는 농가소득의 든든한 축이 될 수 있다" 고 전했다.

최서진 기자
(desk@forestnews.kr)

2023 희망산촌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한국임업진흥원은 7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희망산촌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산촌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아름다운 산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 에세이를 모집한다.

접수방법은 네이버 폼을 통해 이루어지며,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입찰/공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월 16일~10월27일까지의 심사기간을 거쳐 10월 3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산촌은 고밀도 인구 밀집, 주택가격 상승 등 극대화된 도시 문제로 인한 대안 공간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촌캉스, 러스틱라이프, 제로웨이스트 등 쉼과 치유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강오 원장은 "이번 2023년 희망산촌 경진대회에 많은 관심과 국민 참여를 부탁드린다" 며 "지역소멸, 기후위기 시대에 산촌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각 지역의 산촌을 널리 알려 산촌의 인구유입과 휴양과 치유의 대안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김민중 기자
(desk@forestnews.kr)

구독안내 산림신문 0502-006-6000 / www.forestnews.kr
구독료 : 1부 2000원 / 월 8000원 / 1년 96000원(48주)
구독료 입금계좌 농협 : 351-1065-7900-43 산림신문(주)
국내 산림분야 유일의 온라인 신문 지면보다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산림기술연구원(원장 박병수)은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7월 13일(목)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우수한 산림경영 여건과 산주의 높은 참여도를 인정받아 2019년에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영세한 사유림의 집단화·규모화를 통한 지속적인 산림경영으로 사유림경영의 성공모델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장토론회에는 인제군산림조합을 비롯하여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산주들로 구성된 운영협의회, 산표고경영체, 산놀자경영체가 참석하였으며, 산림기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특화임산물 재배단지(산마늘) 경영방법, 산마늘 판매·유통전략 마련,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 산림탄소상쇄사업 적정 사업유형 및 대상지 선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화임산물 재배단지의 운영방안으로 투 트랙 전략 및 K-FOREST FOOD 인증을 통한 상품 가치의 증진을 강조하였으며, 산림탄소상쇄제도 추진을 위한 신청·등록·검증·인증 절차별 검토사항 및 적정 사업 유형과 적정 대상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관련 전문가들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검증·인증 절차 통과 및 수요처 확보를 통해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현장토론회를 통해 인제 상남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경영전략을 재점검함으로써 향후 최선의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김민중 기자 (desk@forestnews.kr)

국립산악박물관, 속초문화관광재단과 공동주관 프로그램 운영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국립산악박물관은 7월 28일(금)부터 9월 16일(토)까지 2023 속초문화관광재단 협업 프로그램 <설악산 클래스>를 운영한다.

설악산 클래스는 모집된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설악산, 식물도감』 프로그램을 박물관 산악교실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한다.

생태환경 연계형 문화예술교육 『설악산, 식물도감』 프로그램은 지역 특화를 주제로 설악산 식물 일러스트 수업을 통해 식물을 직접 탐구하여 '나만의 식물도감 컬러링북' 을 제작해 보는 수업이며, 산림 환경보호 가치관 확립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전범권 이사장은 "국립산악박물관은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 사업 참여 및 협력망을 구축하여 상생 협력·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경현 기자 (desk@forestnews.kr)

기고

2. 목재생산관리 기반 조성을 강화



마상규 박사
서울대 임학과 농학사·석사·박사
한독산림경영사업기구 조정관
상지대, 순천대 겸임교수
(사)한국산림기술인협회 회장
(사)생명의숲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사)생명의숲 고문

국산재 생산과 갱신조림시대로 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순환경영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순환경영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특히 산악국인 한국의 경우는 경영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경영 관리가 어렵고 산지훼손과 산림 황폐로 퇴화될 수 있는 위험도 내재해 있다.

산림경영을 정상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이 가능한 단지가 있어야 하고, 지속적 생산을 위해서는 계획적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생산성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도로와 기계화 생산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생산관리가 어려운 것은 소면적 지번 단위로 생산과 조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산림도로가 없어 일회성 운재로 시설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연친화적이고 고생산성인 장비투입체계가 발달되 있지 않아 환경훼손형 굴삭기 생산방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등 경영체계와 생산체계가 전근대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산림을 산주개인자본으로 인식을 하여 산주에게 산림관리를 방임시키고, 목재생산 사업은 생산업체가 입목을 구입하여 생산유통하는 방식을 취하는 등 일제시대의 임업관리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임업경영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고성능 임업장비를 투입하려면 연간 작업량이 5천~1만㎥ 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 주어야 장비 구입 효율을 기대할 수 있으나 생산관리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있어 고성능 기계화 추진도 어려운 상황이다.

목재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으로는 임반단위(30~100ha)의 규모를 갖추어 간벌, 주벌, 갱신조림 및 숲가꾸기를 집약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거나, 경영구단위(500~2000ha)의 단지 또는 목재생산이용과 연계한 경영 관리를 위해서는 시장관리가 가능한 경영 단지(5천~1만ha)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경영단지가 구획이 되면 계획적 경영으로 목재의 지속적 생산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경영계획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고, 이어서 임도와 작업도 시설을 지원하여 경영기반을 갖추도록 해 주어야 정상적인 목재생산경영이 가능하게 된다.

목재생산관리를 위한 경영체계로 과거 독일과의 협력사업에 의한 사유림협업경영과 10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선도산림경영단지화 사업이 있으나 아직까지 목재생산관리를 위한 단지화 경영체계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있다.

경영단지화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관리 지침으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할 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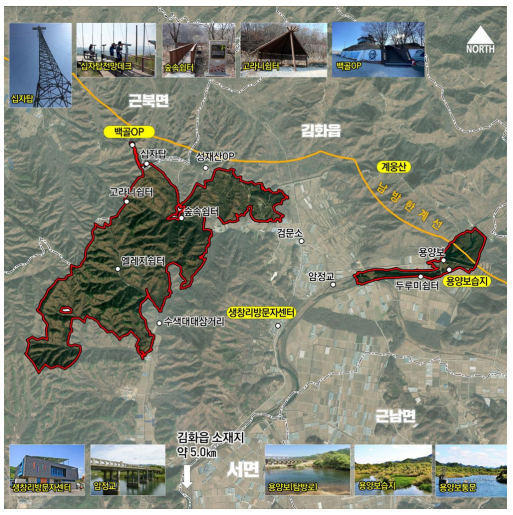
이 사례에서 삭도 방식에 의한 가선계 생산작업시스템을 발전시킬 경우 도로시설밀도를 크게 줄이면서 자연친화형 생산이 가능할 수 있음도 보이고 있다.

(단위: m/ha)

산지구분	작업시스템	임도밀도	작업도밀도	전체밀도
0~15°	차량계	35~50	65~200	100~250
15~30°	차량계 가선계	25~40 25~40	50~160 0~35	75~200 25~75
30~35°	차량계 가선계	15~25 15~25	45~125 0~25	60~150 15~50
35° 이상	가선계	5~15	0	5~15



철원 DMZ 성재산 · 용양보 일원 도립공원 지정



강원특별자치도는 비무장지대(DMZ)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김화읍,근북면 성재산 및 용양보 일원 4.7㎢를 도립공원으로 신규 지정한다.

철원 성재산 및 용양보 일원은 민간인 출입통제선과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국내·외적으로도 생태적·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6년부터 '비무장지대(DMZ)생태평화공원'을 통한 탐방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19년에는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지역이기도 하다.

그간, 강원도와 철원군에서는 타당성 조사, 주민공청회, 중앙행정기관들과 협의(기재부/국토부/농림부/국방부/환경부/산림청) 등 법정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선행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다.

앞으로 공원계획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25년까지 완료하고 '2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원시설 설치 등 관련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비무장지대(DMZ)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전하는 동시에 가치를 적극 활용하여 비무장지대(DMZ)생태벨트 구축의 핵심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법정공원 지정에 따른 국비지원인센티브를 적극 활용, 홍보관 및 생태체험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비무장지대(DMZ)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체류 및 방문인구가 늘 수 있도록 철원군과 긴밀히 협조해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민 기자
(desk@forestnews.kr)

산림환경보호사 양성과정운영

사)산림환경포럼에서 주관하는 [산림환경보호사 양성과정]을 운영합니다.
산림환경개선 사업에 관심있으신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산림내에서 발생되는 각종재해와 **생물종의 보존, 산림병해충, 숲가꾸기,**
목재생산을 위한 벌목작업 등 산림자원과 산림환경보호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



산림환경보호사란 ?

산림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재해와 생물종의 보존, 산림병해충, 숲가꾸기, 목재생산을 위한 벌목작업 등 산림자원과 산림환경보호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교육하는 민간자격제도로 "산림환경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산림보호와 산림자원에 대한, 기술용역, 교육, 컨설팅, 현장 작업지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산림환경〉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할 수 있는 산림환경교육과정입니다.

- 교육과정명 : 산림환경보호사 양성과정 1기
- 교육(모집)인원 : 40명
- 교육기간 : 2023년 07월 31일(월) ~ 2023년 08월 19일(토)
- 교육시간 : 30시간
- 교육과목 : 산불예방 및 진화 | 숲가꾸기 | 산사태와 사방 | 병충해 관리 | 산림안전관리 외

대면교육	01강 : 2023년 07월 31일(월) 19:00~22:00 _3시간 오티. 교재배포. 교육 10강 : 2023년 08월 19일(토) 09:00~12:00 _3시간 평가. 수료
온라인 zoom교육	2강~9강 : 2023년 08월 02일(수)~2023년 08월18일(금) 19:00~22:00 (월.수.금)

- 대면교육장소 / 교육지원방법 및 문의사항 : 배재대학교 자연과학관 201호(교육지역에 따라 별도공지 됨)
  사)산림환경포럼 홈페이지: gkorea.kr
  협)배재에코브릿지 홈페이지: pjecobridge.kr(T. 010-6675-5397)
- 교육비 / 교육등록방법 : 300,000원(배재대학교 재학생 교육비 300,000원 전액지원)
  1. 원서접수(이메일) ecob2942@gmail.com
  2. 원서접수 확인후 선발자에 한해 계좌번호 개별통보(문자)
  3. 기수별 교육비 납입순(선착순)

주관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 운영 산림 복지 법인 & 사회적 기업 배재에코브릿지 배재대학교 원예산림학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연 이벤트 가득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는 올해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열리는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기간 내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먼저 「포레스트 강원 페스티벌」이 행사기간 중 총 8회 진행되며, 「산림프린지 페스티벌」 공연이 70여 회, 거리공연과 숲길 공연이 행사기간 내내 이어질 예정이다. 이들 공연은 솔방울전망대를 비롯하여 실내상설무대와 산책로 등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되며, 산림엑스포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포레스트 강원 페스티벌」은, 9월 22일 오후 3시 40분 홍진영, 장민호, 이찬원이 출연하는 개막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9월 23일 오후 4시 설하윤, 박서진이 출연하는 트롯콘서트, 9월 24일 오후 4시 박재정, 백아연이 출연하는 발라드콘서트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9월 28일에는 2회(14:00, 17:00)에 걸쳐 환경퍼포먼스그룹 유상통 프로젝트의 어린이동화뮤지컬 공연이 펼쳐지며, 10월 1일 오후 4시에는 걸그룹, 하이키, 시그니처가 출연하는 국군의 날 특별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10월 7일 오후 4시부터 보이그룹 CIX, 댄스 크루 라치카의 무대가 펼쳐지며, 10월 8일 오후 4시 코요태와 백지영의 무대가 이어지고, 10월 14일 오후 4시부터 KCM과 박혜원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행사기간 중 「산림프린지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전문 출연진과 지역문화예술공팀의 다양한 퍼포먼스와 공연, 댄스, 클래식, 합창, 연주, 매직쇼, 마임, 타악 등의 공연이 70여 회 이어진다.

또한, 대기열 퍼포먼스로 대기열이 발생할 수 있는 솔방울전망대와 전시관, 환영광장 등 곳곳에서 각종 퍼포먼스 이벤트를 진행하며, 행사장 한쪽의 숲산책로에서는 마술쇼와 전문MC의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김진태 조직위원장은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는 산림에 대한 교육과 체험적인 요소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가득하다." 며, "올 가을철 산림엑스포 행사장에 오시면 오감이 만족하는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안고 갈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박은택 기자
(desk@forestnews.kr)

춘천시, 부러질 위험 큰 대형 노령 가로수 제거

춘천시가 여름철 강풍과 태풍 등으로 쓰러질 위험성이 큰 대형 노령 가로수를 제거한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신샘밭로, 소양로, 중앙로, 가연길, 칠전동 일대 대형 노령 가로수 487주에 대한 위험성 및 평가 정밀진단이 진행됐다.

가로수 위험성은 극심(가능한 빠른 제거 권고 및 수목 주변 접근 즉시 제한), 심(제거 등의 조치 권고, 제거 시기는 관리자 결정), 중(결함개선 조치 및 모니터링 권고, 제거 여부 관리자 결정), 경(결함개선 조치 및 모니터링 권고) 등 네 단계로 분류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487주 중 극심은 14주, 심 53주, 중 131주, 경 284주로 나타났다.

특히 하반기에는 벚나무 등 진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결과에 따라 가지치기, 수목 치료, 제거 등의 증상별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제거한 자리에는 도로 환경을 고려해 가로수를 식재할 예정이다.

김경현 기자 (desk@forestnews.kr)

경남도, '전문임업인 역량강화 교육'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임업인(임업후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임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임업인들에게 최신 임업정책을 소개하고 임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된 본 교육과정은 지난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임업기술 및 정보 등 이론 교육을 비롯해 포항시 청하면 비학산 자락에 위치한 복합산림경영모델 견학을 통해 현장에서 원예치료, 목공, 표고버섯 재배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임업의 방향에 대해 한발자국 다가섰다.

경남도는 전문임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2021년 처음 시행한 이후 3년째 신청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업경영능력 향상 및 관련 산업현장 체험 등으로 도내 임업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명효 경상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임업인들에 대한 역량교육을 강화해 경상남도 임산물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desk@forestnews.kr)

영양군,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카페디저트 교육 실시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7월 24일부터 6회에 걸쳐 농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카페 디저트"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다.

우리 지역특산물인 어수리를 가공한 동결 분말 가루를 이용해 어수리 까레쿠키, 산나물 르뱅 마카다미아 쿠키, 어수리 휘낭시에를, 생물 어수리를 넣은 가토 쇼콜라&어수리 마스카포네 크림, 어수리 페스토를 곁들인 샌드위치를, 아로니아 분말로는 레몬 아로니아 파운드케이크를, 능이버섯을 넣은 스콘까지 실습해 봄으로써 우리 지역특산물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찾아볼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구○○ 교육생은 "나물로 먹어도 맛있는 어수리를 빵과 샌드위치에 이용할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 열심히 배워 딸과 손녀에게도 구워줄 것이다."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윤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물로만 먹던 어수리를 빵에 넣고, 주스로 마시던 아로나이를 분말로 가공해 케이크를 만들고, 보양식에 넣던 능이버섯을 이용해 빵을 굽는 다양한 활용법을 교육함으로 가정에서 또는 지역의 많은 카페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농산물의 소비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동한 기자 (desk@forestnews.kr)

함양산양삼 고부가가치 신규가공제품 품평회 개최



함양군은 7월 21일 오후 3시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함양산양삼 신규 가공제품 품평회'를 개최했다.

신규 가공제품의 세부 연구내용 및 최종상품에 대한 보고회, 시식 등을 진행된 이날 품평회는 진병영 함양군수, 위탁사업을 수행한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 한기민 원장, 함양산삼가공협회 회원, 함양군의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품평회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함양산양삼을 활용한 제품개발에 대한 의지와 아이디어를 가진 함양군 관내의 기업을 모집하여 함양산양삼을 이용한 제품개발 6개 사업을 진행하였다.

세부 사업명으로는 산양삼을 이용한 면역제품(유산균), 산양삼기반 고부가가치 전통식품개발(부각, 전통주), 산양삼 항노화식품개발(티백, 청), 산양삼 코스메틱 제품개발(화장품), 산양삼기반 건강필수품(폼클렌징), 산양삼 다이어트 식품개발(단백질파우더, 타블렛) 등이다.

군은 군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약용작물이나 산양삼을 이용하여 주요성분 분석, 효능검증, 지식·산업 재산권 출원 등을 목표로 신규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양삼의 가공·유통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농·특산물을 융합 활용한 상품화를 통해 가치 향상과 항노화 6차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함양군 항노화산업의 인지도 상승에 따라 소비자층의 요구에 맞춰 산양삼을 기반으로 한 상품 확대에 기여하며 산양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경제에서 경쟁력이 강한 고급제품 생산 및 판매 증대, 홍보를 기대한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함양산양삼은 시기에 있어서 산업적으로 더 큰 가능성을 품게 되었다."라며 "우리 군의 산양삼산업이 함양군의 미래먹거리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서진 기자
(desk@forestnews.kr)

남해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평가 우수 기관 선정



남해군이 '2023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남도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평가는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 실적, 목표달성도, 특수시책 추진성과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분야 전반에 대한 이력관리 시스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남해군은 각 평가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남해군은 지역별 맞춤형 방제를 위하여 드론·항공 및 지상예찰을 실시하였고, 정확한 실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제전략 계획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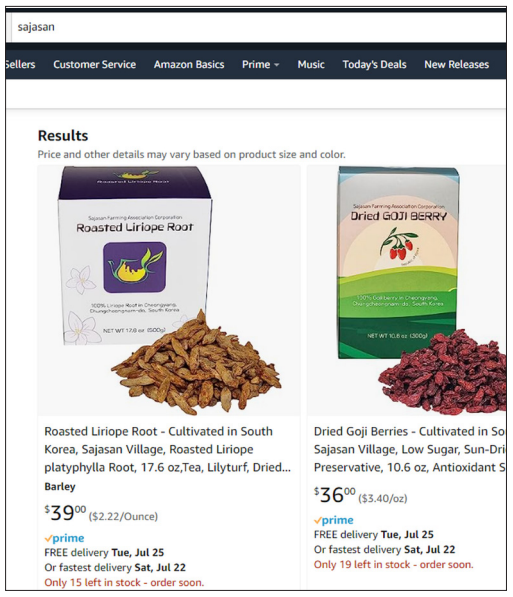
남해군은 감염목 및 기타고사목 등 약 1,378본을 벌채하여 현지 여건에 따라 파쇄 또는 훈증작업을 실행했다. 또한 감염목 주변 소나무림 369ha에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등 복합방제를 통하여 방제효율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처럼 철저한 예찰과 방제를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이 약 45%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남해군 관계자는 "소중한 소나무림의 보존을 위하여 무허가벌채, 훈증무더기 훼손, 소나무류 이동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체계적인 예찰 및 방제를 통하여 남해군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박숙희 기자
(desk@forestnews.kr)

청양 구기자 맥문동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입점



한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청양 구기자와 청양 맥문동이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입점을 마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청양군(군수 김돈곤)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 시장이 국내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세계 각국으로 급성장해 가는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이다.

군은 2021년 하반기부터 해외 온라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운곡면 배미길 소재 사자산 영농조합법인(대표 이남훈)과 손잡고 아마존 입점 준비에 집중했다.

그동안 아마존 납품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보증을 위해 미국식품의약국(FDA) 검사(식품 영양성분표, 제품표시)와 인증을 완료했으며, 입점 상품의 잔류농약 및 유해 물질 검사 또한 순조롭게 마쳤다. 또 위해 요소 분석과 관리를 위해 해썹(HACCP) 시설 구축과 인증 완료 등 어려운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아마존 홈페이지에 두 농특산물의 상품을 입점하고, 상품 상세 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다.

최근 K-문화(컬처)에 이어 K-음식(푸드)이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청양산 구기자와 맥문동이 전국 최초로 아마존 입점을 완료하고 전 세계 소비자들을 찾아가는 사례는 한국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자산 영농조합법인은 구기자와 맥문동에 이어 청양고추 등 청양산 농특산물 아마존 입점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온라인 해외 시장개척을 바탕으로 청양 구기자와 청양 맥문동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하겠다" 라면서 "세계 시장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상품으로 무장하고 유통 시장의 다변화 또한 끊임없이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민희 기자(desk@forestnews.kr)

2023 KOREA FOREST ENVIRONMENT AWARD
2023년 제19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데
공헌한 숨은 공로자를 추천해주세요 .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은 산림의 환경기능을 증진시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데 공헌한 숨은 공로자를 찾아 사기를 높이고, 산림환경 보존의식을 고취 시키고자 2005년부터 언론과 단체가 공동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은 순수한 민간 차원으로 산림환경 공로자를 선정하고 공적을 기록. 보존하여 수상의 명예를 후대까지 남기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은 전국단위 시상이며 광역시도별 『지역 산림환경대상』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선정 시상하며 지역별 산림환경포럼에서 주관합니다.

추천분야 : 입법, 자치, 정책, 행정, 교육, 환경, 임업, 단체
광역단위 : 2023년 08월 31일 18시 한, 전국단위 : 2023년 10월 31일 18시 한
문의전화 : (02)761-6180 , 직통 010-5225-2688 ,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위원회

주최: (사)산림환경포럼 (역대 수상자회) 주관: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위원회
후원: 산림청, (사)한국산림환경보호협회, 한국산림보안관연맹, 산림환경신문, 임업신문, 산림신문
(사)한국임우연합,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재)한국산림아카데미,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환경공단(주), 아이러브우드(주), 우드뉴스
강원산림환경포럼, 경기산림환경포럼, 경북산림환경포럼, 경남산림환경포럼, 충북산림환경포럼
충남산림환경포럼, 전북산림환경포럼, 전남산림환경포럼, 제주산림환경포럼, 한옥신문, 기독신문

진천군, 집중호우 산림피해지 응급 복구 박차



진천군이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훼손된 산림지역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산사태 발생, 수목 전도 등으로 진천군청 산림녹지과에 접수된 산림피해 건수는 총 78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토사유출로 인한 거주지, 농경지 피해가 가장 컸다.

이에 군은 1차 복구로 소속 공무원과 산사태 현장예방단, 산불진화대, 임도 관리원, 가로수관리원 등 일자리 근로자 30여 명을 투입했다.

현장에서는 방수포 작업, 임시배수로 개설, 위험 수목 제거를 했고 2차 복구로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까지 60여 개소의 응급 복구를 완료했으며 이후에도 피해가 접수된 현장은 신속히 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시설 피해가 발생한 임도 포함 공공시설 8개소(피해면적 2.1ha/ 피해액 3억 800만 원), 사유시설 10개소(피해면적 0.7ha/ 피해액 1억 1천만 원)는 국비를 확보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항구 복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조속히 복구를 완료해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며 "향후 산사태 취약지역 145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활권·거주지 주변, 개발지를 중심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추가지정 등 산림 재해 예방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김제현 기자(desk@forestnews.kr)

금산군, 진악산 산림욕장 꽃무릇 단지 조성 박차



금산군은 진악산 산림욕장 꽃무릇 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악산 산림욕장 꽃무릇 단지는 지난 2021년부터 보석사 은행나무 및 일주문 인근에 꽃무릇 25만7000본이 식재됐으며 올해 2억 원을 투입해 보석사~영천암 구간에 꽃무릇 19만 본을 추가로 식재하고 포토존도 조성할 예정이다.

군은 건강한 산림욕을 제공하는 명소를 구성해 주민 및 관광객의 방문을 확대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초 보석사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 및 의견조정을 시행했다.

식재를 마친 뒤에는 지역 명소로서 알려질 수 있도록 걷기체험 및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진악산 산림욕장의 빨간 꽃무릇은 가을철 노란 은행나무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 것" 이라며 "꽃무릇이 피는 9월 전까지 식재를 마무리하고 관광명소로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김제현 기자
(desk@forestnews.kr)

완도군, 전복 이용 동충하초 및 이의 배양 방법 특허 등록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완도군농업기술센터와 씨엔지유기농 영농조합법인과 공동 연구로 「전복을 이용한 동충하초 및 이의 배양 방법」에 성공하여 이에 대한 특허 지적 재산권을 확보했다.

동충하초는 흔히 곤충에서만 자란다고 알려져 있는데, 연구를 통해 전처리한 전복에 동충하초 균주의 포자 현탁액을 접종하여 배양 및 생육에 성공했다.

완도에서 생산되는 전복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아르기닌을 함유하고 있어 원기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돼 보양식 중 으뜸으로 꼽히고 다양한 식품 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동충하초는 코디세핀을 비롯한 여러 유효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항암, 항당뇨, 대사질환 개선, 항바이러스 등 다양한 약리 활성이 보고되어 있다.

이번 특허 등록을 통해 버섯 재배 농가와 완도군버섯연구회를 중심으로 기술 이전을 통해 전복에서 재배한 동충하초의 약리적인 기능성을 더 향상시켜 다양한 가공식품 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기능성이 강화된 버섯 산업 시장 활성화와 군 대표 수산물인 전복과 버섯의 소비 촉진으로 농어가 소득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복선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능성 버섯의 지역 적응시험재배를 통해 우리 군 버섯 산업의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과 수산의 기능적 융복합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허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청 및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버섯 공모사업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김경현 기자 (desk@forestnews.kr)

고흥군, 주요 임도 노선 풀베기 작업 시행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임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산림 경관 제공을 위해 주요 임도 노선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초부터 마복산, 조계산, 천등산, 봉래산, 두방산 등 주요 임도 50km 노선을 최근 완료했다.

임도는 산과 마을을 연결하고, 숲 가꾸기, 조림 등의 산림경영, 산불 진화와 숲 탐방, 휴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980년도부터 개설해 주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숲 트레킹과 산악자전거 등 산림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중요 기반 시설로 각광받고 있다.

이후로도 마복산, 천등산 등 주요 명산을 중심으로 18개소, 160km에 대해 풀베기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신규 임도사업을 추진하고, 임도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산행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진동 환경산림과장은 "여름 장마철 산림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 고 말했다.

김동한 기자 (desk@forestnews.kr)

구독안내 산림신문 0502-006-6000 / www.forestnews.kr
구독료 : 1부 2000원 / 월 8000원 / 1년 96000원(48주)
구독료 입금계좌 농협 : 351-1065-7900-43 산림신문(주)
국내 산림분야 유일의 온라인 신문 지면보다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원목표고 활용한 표고빵 시식행사 개최



전남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지난 7월 24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빵 개발을 위해 원목 표고 버섯빵 시식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시식회는 직원 100명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으로 개발 중인 원목표고 버섯빵의 모양과 맛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시식회에서는 장흥 표고버섯 불고기포카치아, 버섯이랑께 주먹빵, 원목 표고버섯 흑임자빵, 원목 표고버섯 꿀빵 등 다양한 빵이 소개됐다.

시식한 원목표고 버섯빵은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광주여자대학교와 합작하여 개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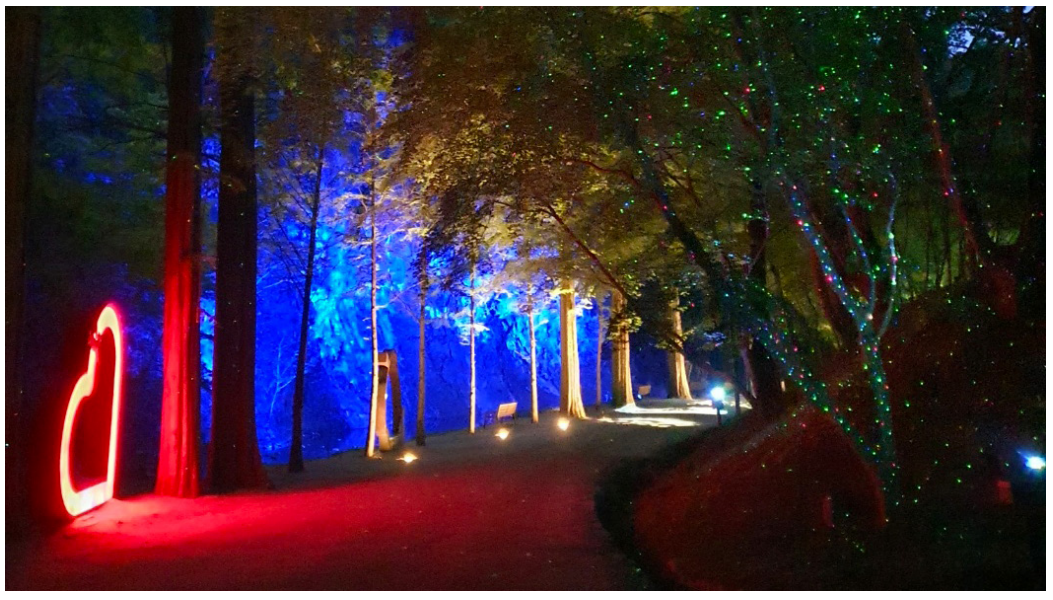
이와 함께 장흥의 대표 먹거리인 장흥한우삼합(표고, 소고기, 키조개)을 응용한 장흥 삼합빵과 삼합버거도 추가로 선보여 평가의 함께 시간을 가졌다.

연구원은 이번 품평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물축제기간동안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식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역빵의 성공을 통해 표고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 며 "물축제에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평가를 받아보겠다" 고 전했다.

최서진 기자 (desk@forestnews.kr)

순창군, 다양한 빛의 향연 강천산군립공원 야간개장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인 순창 강천산군립공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간개장을 통해 반딧불 조명 등 다양한 빛의 향연을 펼친다.

순창군은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더위로 낮 시간을 피해 저녁 시간대 강천산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주말에도 휴무일 없이 야간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간 운영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오후 9시까지 입장을 마쳐야 하며, 입장료는 성인기준 5,000원, 청소년 4,000원이며 입장료 중 2,000원을 지역상품권인 순창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줘 관광객들이 순창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야간개장 구간은 매표소부터 천우폭포까지 1.3km이며, 반딧불 조명과 함께 다양한 빛과 스토리를 가미한 영상 콘텐츠 '단월야행' 을 감상할 수 있다.

'단월야행' 은 조선 중기 고전 소설인 '설공찬전' 을 모티브 한 것으로 구름계곡, 신비의 강, 빛의 정원, 달의 궁궐 등의 다양한 컨셉을 미디어쇼와 화려한 조명으로 연출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다.

특히, 야간의 강천산군립공원은 은은한 경관조명 아래에서 낮과는 색다른 풍경과 물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전망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여름 휴가철 야간개장을 통해 이색적인 강천산군립공원의 색다른 모습을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 며 "강천산군립공원에서 순창군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안전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박숙희 기자 (desk@forestnews.kr)



작업중지하세요 ! 목재 표면이 손상되고 껍질을 벗겨내는 고압세척 멈춰야 합니다.
벽 사이로 들어가는 고압수는 건조시킬수 없고 오히려 내부에서 썩게 만들며 충해를 입게하는 세척! 이제 친환경 세척제로 목재에 손상없는 세척을 하셔야 합니다.
기둥, 보, 서까래에 갈라진 할렬, 충해로 구멍이 숭숭, 흰개미가 날아다니게 할까요?
이제 우드앤 친환경공법, 특허등록된 체계적인 보수방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특허 등록





제품 및 기능

- **WOOD WASH**
  오염된 목재 세척
- **WOOD GUARD**
  흰개미, 가루좀 방충
- **WOOD PROTECTOR**
  자외선차단, 변색보호
- **WOOD STAIN**
  통기성, 방수, 방부



특허명: 목조건축물의 손상된 목재의 체계적인 보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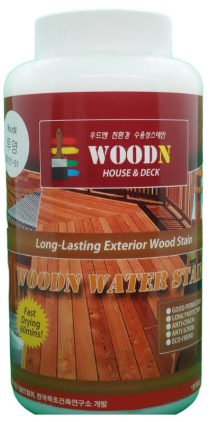
친환경 세척 → 흰개미 방제 → 할렬 메꿈 → 방부 도장

WOODn 우드엔
지금 바로 상담받기



우드앤 오일스테인 (유성)

목재용 발수제, 방충제
한국임업진흥원 (2012.10.22)
흰개미 살충력 100% 인증
국내 기후에 적합하며 조습능력
향상과 방부, 방충, 방수, 방미에
우수하며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우드앤 워터스테인 (수성)

목재용 흰개미, 부후균 방충제
한국임업진흥원 성능 인증
친환경으로 내.외부 모두 사용가능
VOC 규제기준 150g (본제품 20g이하)
선명한 색상으로 무늬와 질감 표현
냄새가 적고 60분만에 건조로 작업용이

www. woodcare.kr Tel : 0502-100-6000 한국목조건축연구소

오승록 노원구청장, 탄소중립시대 목조건축도시 진주시 방문



진주시는 지난 7월 24일 오승록 서울시 노원구청장을 비롯하여 관련 부서 공무원 18명이 목조 공공건축물 벤치마킹을 위하여 진주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산림청이 지난 6월 13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중앙-지방이 함께하는 산림 100년'을 주제로 주최한 산림연찬회에서 110여 개의 전국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 산림부서장 등 6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규일 진주시장이 발표한 '진주시의 우수한 목조 공공건축물 우수사례와 비전'을 듣고 노원구에도 도입하기 위해 이뤄졌다.

방문단은 푸른도시과, 자치행정과, 건축과, 여가도시과, 산림치유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부서 공무원 1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노원구청장 등 일행은 '문산읍 주민자치어울마당'과 '물빛나루쉼터' 및 국내 최초의 카본넷제로(Carbon Net Zero) 빌딩인 '가호동 돌봄꽃집'을 둘러보고 진주시에서 국가정원 조성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을 둘러보았다.

이중 '가호동 돌봄꽃집'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친환경 건축기술을 지원받아 탄소를 쓰지 않는 에코콘크리트와 굽는 과정 없이 만든 비소성 벽돌을 사용하고, 태양열을 이용한 복사열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등 생태건축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탄소중립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다.

진주시는 시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40% 이상이 목조건축으로 지어지고 있으며 탄소중립 시대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경로당과 주민자치센터 등 시민들이 가까이 접하는 소규모 목조건축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원구청장을 맞이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는 공공분야에서부터 친환경 목조건축을 선도하고 있으며, 진주의 역사와 문화에 알맞고 미래세대를 위한 건축문화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승록 구청장은 "탄소중립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전 세계적인 과제인 만큼 노원구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탄소중립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전재룡 기자
(desk@forestnews.kr)

영주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영주시는 난방비 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시에 주소를 둬야 하며 자부담 30%부담 능력이 있어야하며 보일러설치 후 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무허가 건물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사업량은 25대로 산림청(사업비 9200만원) 보급 대상 보일러 3개 업체 7종류에 대해 보일러 1대당 보일러 가격(399-699만 원)의 70%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1세대당 1대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이 될 수 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산림과 산림경영팀(054-639-686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숙희 기자 (desk@forestnews.kr)

대전 대덕구,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공모 실시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지역 내 목재생산업체의 노후화 시설을 개선하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대덕구에 따르면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은 제조시설 교체 등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구는 1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 자부담 80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1억 2000만원(60%)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노후화 시설 교체와 인건비와 경비 절감을 위한 자동화 시설 신규 설치 등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사업장(등록 및 제조시설)을 두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제재업)을 등록한 업체, 신청일 현재 설치장소가 확보 가능한 업체, 지원계획 상의 사업비 자부담이 가능한 업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목재산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서진 기자
(desk@forestnews.kr)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전통 한옥 브랜드의 가치를 더하다!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전통 한옥 브랜드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은 전통 한옥을 한국 고유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체험숙박시설로 육성하고자 체험상품 개발 및 운영비 지원, 홍보 및 판로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올해 관광공사에서는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을 포함한 28개의 업소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은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 숙박·체험객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처용무, 태평무, 검무 공연 등 각종 전통문화예술 공연 콘텐츠와 전통혼례 체험, 과거시험 및 무예 체험 등 옛 선조들의 일생의례를 이해하고 계승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체험관의 한옥숙박시설 예약률이 매월 만실에 가깝고, 전시실, 세미나실 대관 예약이 꽉 찰 정도로 방문객과 문화예술인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체험동에서는 세시풍속 체험, 문화가 있는 날 (사찰음식 탐미여행, 전문강좌 및 일일 자율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해 외부 관광객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정지승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전통 한옥 브랜드화 공모사업을 통해 옥천전통문화체험관이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의 통합 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전통 한옥 브랜드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한옥 체험시설로 도약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김제현 기자
(desk@forestnews.kr)



예산군 추사고택, 묵향 가득한 '김정희 삶'을 들여다보다!



예산군 추사고택은 추사 김정희 및 조선 후기 왕가의 생활상을 재현하기 위해 3개월간 한지 도배 및 콩댐 장판 시공, 사랑채 전통가구 제작 후 재배치를 완료했다.

추사고택은 지난 1977년 '추사고택 정화사업' 이후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양지 도배와 폴리염화비닐(PVC) 장판으로 이뤄져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전주에서 제작되는 전통 한지를 이용해 도배를 했으며, 콩댐 장판을 이용해 바닥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정비된 공간에 사료(史料) 및 당대 유물의 제원 및 형태를 기반으로 목가구를 별도 제작했으며, 기존에 있던 전통 가구 역시 신·구 가구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취색(取色) 및 수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간의 생동감을 주고 관람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사랑채 내부에는 보료, 유제 촛대, 고비 등 총 25종의 소품을 추가 배치했으며, 일반 고택이 아닌 추사 김정희 선생의 고택인 만큼 붓, 먹, 종이, 벼루 등 서예를 떠올릴 수 있는 문방사우(文房四友)를 전면 배치해 묵향이 머무는 추사고택을 표현했다.

추사고택은 이번 복원작업 중 조선시대 벽지, 목가구, 공예, 한옥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 및 고증을 통해 조선 후기 양반 및 왕가의 삶을 재현하고자 했으며, 사랑채 내부에 다도(茶道) 관련 소품을 배치해 차(茶)를 사랑했던 추사 김정희의 삶도 재조명했다.

추사고택 관계자는 "추사고택 내실 전통화를 통해 추사고택의 가치와 역사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추후 안채 내부 역시 복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추사고택을 찾는 방문객에게 훌륭한 문화유산이 주는 품격을 고취시키고 추사고택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고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김동한 기자
(desk@forestnews.kr)

김제시, '새만금권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보고회 개최

김제시는 지난 7월 21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정성주 김제시장, 양운엽 행정경제위원장, 이정자 시의원, 전라북도 관광산업과장, 전문가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권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용역 보고에 이어, 전문가 의견수렴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으며, 새만금권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사업의 필요성, 규모, 타당성 등 세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새만금권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사업은 김제시 시내권 일원에 총사업비 197억 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건립할 예정으로 김제시에서는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철도 등 기반 시설 개통 시 새만금을 방문할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사전 대비가 조속히 필요하다." 라며, "앞으로도 전라북도와 협업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방문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국가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북을 제3메가 관광권인 '새만금을 품은 문화예술 관광지대' 로 지정하고 전북의 한옥, 한식, 한복 등 전통문화 테마로 관광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박은택 기자 (desk@forestnews.kr)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 등 산사태우려지역 집중점검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은 장마철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피해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모두베기 방제사업지 및 산사태취약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인명피해 우려지를 중심으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점검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7월 19일과 25일에는 올해 상반기 경기 양평군·포천시에서 실행한 소나무재선충병 모두베기 방제사업지를 방문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과 민가 피해발생 여부, 낙석이 우려되는 점은 없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였다. 아울러, 해당 기간동안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위험여부,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시설, 산림다중이용시설 등 시설물 관리상태를 비롯해 피해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태풍, 국지적인 집중호우를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및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 축대 붕괴 등의 시설물로 인한 위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고방지를 위해 취약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 달라" 고 전하면서, "주민들께서도 산사태 경보 등이 발표되고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신속하게 대피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협조해달라" 고 당부했다.

전재룡 기자
(desk@forestnews.kr)

인천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병해충 발생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8월까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산림병해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6월부터 8월까지를 산림병해충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피해 방지 및 지역 주민 불편 최소를 위해 지속적인 예찰 활동과 적기에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는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지역 주민 대상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 피해목 방제사업 및 제거 처리, 피해목 발견을 위한 공동 예찰 진단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개 단을 운영하며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병해충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병해충 이동 특성에 따라 농경지와 주변산림에 공동방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역별 농업부서와 협의체를 구성해 산림지역과 농경지가 동시에 방제될 수 있도록 공동방제계획을 수립하고 공동방제의 날을 지정해 협업방제를 실시·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까지 병해충 월동난 예찰 및 방제계획을 수립해 6월까지 1차 협업 방제를 실시했으며, 7월 약·성충 발생 조사를 실시 후 8월까지 2차 협업 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차 검사기관인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각 군·구에서 채취한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시료를 정밀 검사해 재선충병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 녹지정책과장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적극 운영해 산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체계적인 예찰과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김경현 기자 (desk@forestnews.kr)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생태계 교란식물 환삼덩굴 활용한 탈모방지 제품 개발



냇가, 길가, 산기슭 등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역 아무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생태계 교란종인 '환삼덩굴' 을 이용한 탈모 방지 제품이 개발돼서 화제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생태계 교란종인 환삼덩굴 활용을 위한 3년여 간의 연구 끝에 탈모 방지 효능을 확인하고 '환삼덩굴의 탈모 완화 및 방지 관련' 신규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최근 환삼덩굴을 활용한 천연 탈모 방지 샴푸와 천연헤어두피토닉 시제품을 제작해 민간 연구소에 인체 적용 실험을 한 결과 탈락 모발 수 감소, 두피 탄력, 두피 표피 두께 등 탈모 방지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민간 기업을 선정해 기술 이전을 추진 중이며, 기술 이전과 함께 제품 양산화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구진은 환삼덩굴 지상부에서 기능성 재료로 활용이 가능한 폴리페놀 물질을 추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6월에 채취한 재료가 8월에 채취한 재료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높고, 끓는 물에 추출한 것보다는 알코올에 추출 할 경우 폴리페놀 함량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연구진은 추가 실험을 통해 환삼덩굴에서 추출한 폴리페놀에 우수한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미백효과까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어 항염, 탈모 개선 효과 검증을 수행한 결과 환삼덩굴 추출물 항염증 효과와 함께 모발의 생존 주기를 늘려준다는 것도 밝혀내 특허 출원을 추진했다.

'환삼덩굴(학명 : Humulus japonicus Sieboid & Zucc.)' 은 삼과의 한해살이 초본식물로, 대한민국 및 일본, 타이완, 중국, 아무르, 우수리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 교란 식물 중 하나이다. 훼손된 들에 흔하게 자라는 덩굴성 한해살이풀로, 땅을 기거나 다른 식물의 위를 덮으며 자라는 원줄기와 잎자루에는 잔가시가 있어 거칠다. 잎은 줄기에 마주나며 잎자루 끝에서 손바닥 모양으로 5~7개로 갈라지고 양면에 거친 털이 있다.

석용환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 "생태계 교란 식물의 가장 효율적인 제거법은 사용처 개발을 통한 재료로의 소비 촉진"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환삼덩굴 등 생태계 교란 식물의 활용방안 및 상용화에 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박숙희 기자
(desk@forestnews.kr)



집중호우에 따른 임산물 피해 임가 안전점검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은 7월 25일 연이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임산물 피해를 입은 임가를 방문하여 임업인을 위로하고 피해 현황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도는 엘리뇨가 발달하여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2차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지역 주변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호우피해에 따른 임업인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며, 산림재해로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김현민 기자
(desk@forestnews.kr)



산림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은 7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1-5 2020년도 조림지의 여름철 풀베기 사업장 및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을 실시하였다.

여름철 풀베기 작업은 열사병이나 벌·진드기와 같은 독충류에 의한 사고, 낫이나 예취기에 의한 베임 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며 특히, 해당 사업장은 2019년 산불피해지를 복원한 곳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구급약품 비치,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작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하였다. 또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작업로 피해 여부 및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였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산림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산사태 등의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현민 기자 (desk@forestnews.kr)

철원 두루웰숲속문화촌, 무료 어린이물놀이장 개장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은 어린이물놀이장을 7월 15일 ~ 8월 24일까지 1일 3회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운영 시작한 어린이물놀이장은 280㎡규모(수심 0.3m이하)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인 워터터널, 버섯폭포, 워터버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에 파라솔과 해먹 등의 휴게시설, 어린이조합놀이대와 함께 여름철 성수기 동안 자연휴양림(펜션)과 캠핑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놀이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무더위 피서지로 활용된다.

두루웰숲속문화촌은 어린이물놀이장 이외에도 항시 운영하는 산림욕·족욕 체험을 할 수 있는 실내산림욕장,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목공예체험, 숲속의 모험 에코어드벤처와 여름방학 이벤트 산림교육전문가인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키링만들기 체험 등 심신을 치유·단련하는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권대인 녹색성장과장은 "두루웰숲속문화촌이 계절별 다양한 체험활동과 볼거리 제공으로 사계절 숲 속 힐링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시설 이용은 1일 1회에 한하여 12세이하 어린이와 5세까지는 가족당 보호자 1명이 입장하여 2시간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1회당 최대 입장인원을 40명으로 한정하고 있다.

예약은 통합플랫폼(숲나들e) 또는 두루웰숲속문화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매주 화요일 휴장하며, 자세한 사항은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사무소(033-450-5198)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한 기자
(desk@forestnews.kr)

국립세종수목원, 2023년 품종육성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내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해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민간육종가를 대상으로 자생식물 활용 신품종 육성을 위한 '품종육성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추진하는 품종육성 지원사업은 우수한 품종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보, 기술 등의 부족으로 품종 출원이 어려운 개인 육종가 또는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우수 품종 보유자를 적극 지원해 국내 육성 품종을 개발하고 정원식물을 국산화해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내국인 한정 자생식물을 활용한 육성 품종 보유자이며, 지원 내용은 우수 개체 출원품종, 대조품종에 대한 특성조사 지원, 품종출원 수반 비용 지원, 신품종 등록 이후 품종 홍보 및 국내·외 판로 지원 등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국립세종수목원(www.sjna.or.kr) 및 정원누리(www.kcogi.or.kr/garden)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cvplant@kcogi.or.kr) 또는 우편,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수정 소셜미디어 채널,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 정원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우수한 품종을 보유한 민간육종가를 적극 지원해 정원식물의 국산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은택 기자 (desk@forestnews.kr)

산림사업장 선제적 안전관리로 적극행정 실천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7월 25일 안전보건공단 제천 안전체험장에서 현장근로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건설업 등 각 분야별 가상현실(VR) 체험, 보호구 착용 및 응급처치 요령 실습 등 산림사업 현장근로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여름철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데 큰 호응을 얻었다.

관리소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자체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박광서 소장은 "재해 발생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 고 말했다.

김경현 기자 (desk@forestnews.kr)

만인산푸른학습원, '여름방학 맞이 특별 환경교육' 운영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업소는 꿈나무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11개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여름방학 맞이 특별환경교육』을 7~8월 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주요 에코 딩동벨 교구 놀이, 자연휴양림 체험 등 자연교육, 우당탕 재활용 운동회 등 재활용 교육,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순수 체험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회에 걸쳐 센터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과 만인산자연휴양림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참여를 통해 환경의식 함양은 물론, 또래 간 협동심을 기르고, 쌓인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만인산푸른학습원은 그동안 유아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숙박형 환경교육, 일일현장체험학습, 자유학기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환경교육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전시 정해교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대전시와 지역아동센터가 협력하여 만들어낸 성과로, 앞으로도 더 다양한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아동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제현 기자 (desk@forestnews.kr)

KWE 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

탄소중립 실현 ! 목재이용이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목재산업의 중심 ! 사단법인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2023년도 목표

1.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을 위한 "목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2. 목조건축 보급활성화를 위한 "국가목조건축센터" 설치.
3. 국산목재 이용확대를 위한 "목구조시공업종" 신설.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범 정부 목재산업관련 협.단체의 연합체로서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연합회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합회는 목재이용증진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3월 1일 연합회장 김 헌 중

(사) 한국합판보드협회	박승준 회장	(협)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김병진 이사장
(사)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서병륜 회장	(사) 한국목재칩연합회	김종원 회장
(사) 한국목조건축협회	이국식 회장	(사)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김헌중 회장
(사)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강수철 회장	(사) 한국목재보존협회	김종환 회장
(재) 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	최명수 이사장	(사) 한국DIY가구공방협회	오진경 회장
(사)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박경식 회장	(사) 대한목재협회	이운욱 회장
(사) 한국원목생산업협회	정월봉 회장	(사)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김지응 회장
(사) 한국목재시설물협회	최규웅 회장	(사) 한국고열처리목재협회	김경중 회장
(사) 한국성형목탄협회	김현웅 회장	(사) 한국국산목제재협회	신용구 회장
(사) 한옥기술인협회	김가영 이사장	(사)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홍경선 이사장
(사) 한국목재공학회	오세창 회장	<설립.가입 순> 2023년 1월	

사무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산림비전센터 404호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www.kwood.or.kr 전자우편: wood@kwood.or.kr 전화: 02-761-6180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채취자 교육 실시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 7월 26일 영덕로하스수산식품센터 2층 대강당에서 국유림 보호협약 대표자 등 94개 마을 100여명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채취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유림 보호협약제도를 이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가을철 주 임산물인 송이·능이·기타식용버섯을 무상양여를 실시하기 위해 산림 관리 요령, 보호협약 체결 및 산림보호 활동 이행 안내, 무상양여신청방법 전달 등을 진행하였다.

매년 가을철이면 지역 주민에게 송이버섯의 양여를 실시하고 있으나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송이버섯 외 능이버섯과 기타식용버섯에 대해서도 무상 양여를 확대하기로 하여 주민 소득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상우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지역주민들에게 산불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생산되는 임산물로 소득을 창출하는 상생 제도"라며 "이러한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김동한 기자
(desk@forestnews.kr)



구인모 거창군수와 임상섭 산림청 차장, 임업 현장 방문



거창군은 지난 7월 23일 거창군에서 가장 많은 사유림을 경영하면서 다양한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모범독림가 유형열 임가를 방문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임업경영 활동의 애로사항 등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잦은 집중호우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해에 취약한 임업분야 현장 점검과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구인모 군수와 임상섭 산림청 차장,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이 참석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유림 경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유형열 임업인을 격려하고, 집중호우 대피 현장을 함께 점검했다.

유형열 임업인은 덕유산 자락에서 잣나무, 낙엽송, 편백, 고로쇠 등 다양한 산림수종을 200ha 이상 조림해 40년 넘게 키워온 업적으로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모범독림가이다.

또한, 고로쇠수액, 두릅, 복분자, 표고, 오미자, 잣 등 연간 끊임없이 임산물을 생산·판매하고 지난해 11월에는 산림청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된 거창군 대표 임업인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군은 다행히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없으나 철저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라며 "임업인에 대한 관심으로 거창군을 방문한 임상섭 산림청 차장에게 감사드리며, 현장의 목소리를 산림정책에 반영해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김동한 기자
(desk@forestnews.kr)

부산 기장군,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도시숲 조성사업' 박차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좌천역 폐선부지 일원에 대규모 도시 탄소저장숲을 조성하는 '좌천역 폐선부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동해남부선이 복선화되면서 폐선된 기존 철도부지를 활용하는 '폐선부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 장안읍 좌천리 226-4번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일원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5ha 규모의 탄소저장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산림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에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올해 6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군은 올해 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조성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규모 탄소흡수원의 확충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저감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방치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동해남부선 관광자원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에게 자연과 문화가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숙희 기자
(desk@forestnews.kr)

함평군, 제2회 무궁화 전시회 개최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함평자연생태공원 야외광장에서 나라꽃 무궁화가 전시된다.

함평군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함평자연생태공원 야외광장에서 '제2회 함평군 무궁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고 밝혔다.

이번에 2회를 맞은 무궁화 전시회는 광복을 이뤄낸 우리 민족의 의지와 끊임없이 피고 지는 무궁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에는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민족대표 33명의 숭고한 독립 애국정신을 기리고 호국보훈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33종의 품종을 전시했다.

또한 작품 23점도 전시해 무궁화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감상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아름다운 무궁화를 마음껏 감상하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아욱과 무궁화속의 낙엽관목인 무궁화는 매년 7월~10월 중 약 100일 동안 끊임없이 꽃이 피고 져 무궁화라 이름 붙여졌고, 광복절 전후로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운다.

김제현 기자
(desk@forestnews.kr)

신안군, 여름새우란(蘭) 전시회 개최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8월 5일부터 20일까지 자은면 1004뮤지엄 파크 에서 한여름에 피는 여름새우란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안군농업기술센터와 신안군새우란연구회(회장 정언호)에서 보유한 한국과 일본의 여름새우란 원종 100여 점을 비롯해 풍란, 흑산비비추 등 도서 자생식물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람객들에게 멸종위기 새우란 등 자생식물 홍보와 여름새우란 전시를 기념하고자 특별한 새우란 소재 기념품도 판매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새우란은 모두 봄에 꽃을 피우는데 여름새우란만 유일하게 7~8월에 꽃을 피우며, 국내에서는 제주도 일부 지역에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름새우란은 꽃꼬리(距)가 없고, 일반 새우란은 꽃대가 새촉 속에서 오르는 데 반하여 여름새우란의 꽃은 떡잎 속의 구경에서 오르며, 향기는 없는 것이 특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올해 전국 최초로 새우란 축제와 전국대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통해 새우란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라면서 "2024년에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생란 생산 기반 구축 사업 추진 등 지역 내 자생란 생산 선도농가 육성으로 소득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김동한 기자 (desk@forestnews.kr)

난대림 · 다도해 품은 완도자연휴양림서 여름휴가 즐기세요



전국 최대 난대림과 다도해의 절경을 품은 완도자연휴양림이 객실 등 안전점검을 마치고 여름 휴가철인 8월 31일까지 정기 휴무일 없이 정상 운영한다. 완도자연휴양림은 방문자 안내센터 1동과 숲속의 집 객실 10동, 삼나무숲 속 놀이터, 휴양림 내 산책로 등을 갖추고 있다. 내부를 모두 편백으로 꾸민 숲속의 집 객실은 112㎡(34평)형 2동, 49㎡(15평)형 8동으로 운영된다.

산림청 '숲나들e'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는 성수기 예약은 숙박 예정일 6주 전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예약 가능하므로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기존 산중에 있는 휴양림과 달리 탁 트인 지중해풍 경관이 있는 국내 유일 완도자연휴양림은 객실 대부분이 남향으로 완도의 아름다운 다도해 전경을 즐길 수 있는 '힐링휴양지' 로 주목받고 있다.성수기 이용객 안전을 위해 숲속의 집 객실 안전점검을 마쳤고, 호우를 대비한 비상근무 체계와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계획도 수립했다. 또 신규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숲해설'을 진행하고 있어 이용객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면 전남도 완도수목원장은 "완도자연휴양림은 바다와 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에 최적의 휴양지" 라며 "이용객이 최상의 휴식을 즐기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객실 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완도자연휴양림(061-550-35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민희 기자
(desk@forestnews.kr)

2023 국가자격 목구조기술자 교육 일정 안내

목구조기술자는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 입니다.

목구조시공기술자 예비과정 일정

과정명	B행	인원	수강료	교육원
친환경건축시공	03.20~07.25 89일 529시간	20	국비지원 내일배움	대전목조건축학원
목구조시공기술자 예비과정 1기	04.03~06.28 60일 360시간	20	자부담	한옥기술인협회 직업전문학교
목구조시공기술자 예비과정 2기	07.03~09.26 60일 360시간	20	자부담	한국목조건축 직업전문학교
목구조시공기술자 예비과정 3기	10.04~12.28 60일 360시간	20	자부담	한국목조건축 직업전문학교

목구조시공기술자 연수과정 일정 대상: 예비과정이수자, 해당 자격, 학력소지자

과정명	B행	인원	수강료	교육원
목구조시공기술자 연수과정 1기	01.16~03.24 44일 350시간	20	자부담	한국목조건축 직업전문학교
목구조시공기술자 연수과정 2기	07.03~09.01 44일 350시간	20	자부담	한국목조건축 직업전문학교
목구조시공기술자 연수과정 3기	07.31~10.05 44일 350시간	20	자부담	한국목조건축 직업전문학교
목구조시공기술자 연수과정 3기	10.04~12.05 44일 350시간	20	자부담	한국목조건축 직업전문학교

목구조관리기술자 연수과정 일정 대상: 시공과정이수자, 해당 자격, 학력소지자

과정명	B행	인원	수강료	교육원
목구조관리기술자 연수과정 1기	04.03~06.02 44일 350시간	20	자부담	한국목조건축 직업전문학교
목구조관리기술자 연수과정 2기	09.04~11.09 44일 350시간	20	자부담	한국목조건축 직업전문학교

수강신청 시 참고사항 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

▶ 예비과정은 목구조시공기술자 연수대상자, 목조주택시공 현장 기능자, 자기집 건축예정자가 대상입니다.
▶ 연수과정은 자격취득 과정평가형 연수이므로 과정중 6회 평가와 이수시험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교육비 환불 불가.
▶ 문의사항: 063-642-9922 교육상담교사 ▶ 방문: 전북 임실군 관촌면 사선2길 96 임실목재문화체험장



산림청이 전국의 덩굴류 분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덩굴류로 피해를 입은 산림이 약 4만5000ha(전체 산림면적 633만ha)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역별 덩굴식물 피해현황을 보면 전남(2만125ha), 경남(2788ha) 등 남부지역에서 피해가 컸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제주(2106ha) 지역의 덩굴류 피해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163ha), 부산(92ha), 인천(623ha), 대전(35ha) 등 대도시 지역 산림도 덩굴류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에 산림환경 보호단체인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이 연구를 지원하고 나섰다.

산림환경공단, 칡넝쿨 제거에 친환경공법으로 획기적 성과 거둬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시행 2020. 6. 15]에서는 덩굴제거 작업을 물리적 방법(주두부 제거법, 친환경 비닐랩 밀봉처리법, 지상부 예취법 등)과 화학적 방법(글리포세이트 액제 처리, Fluroxypyr-meptyl + Triclopyr-TEA 미탁제 처리)등으로 구분, 제거 작업을 하고 있으나 성과는 50%이하 . chiclean은 특허받은 새로운 제거법으로 단 기간에 칡덩굴을 100% 발본색원 할 수 있다.













작년 작업분에 대하여 현재사항을 확인한 바 고사제를 주입한 주두부에는 상기 사진과 같이 완전 고사되었음을 확인함 (2023.06.02)

산림환경공단 전화 0502-100-6000 상담 010-5225-2688 김현정 이사

주문방법: 수량과 수령주소를 위의 상담번호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